

차 례

한국교회 탄소중립 캠페인 설명회 및 협약식

I. 설명회 및 협약식 / 1

1. 차례	1
2. 일정표	2
3. 제106회 총회 결의문 / 기후 위기 대응 총회 결의문	3
4. 업무협약서	5
5. 캠페인에 대한 신학적 설명 / 배현주 교수	7
6. 캠페인에 대한 실천적 설명 / 이진형 목사	23
7. 다음세대의 요청 / 한려원 학생	31
8. 생태적 회개를 위한 기도 / 도영수 목사	32

II. 참고자료 / 33

1. 경건 절제운동 지침서 / 제77회 총회 채택(1992년)	33
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1세기 환경선언문 / 제87회 총회 채택(2002년)	57
3. 경제와 생태정의를 위한 총회 선언문 / 제94회 총회 채택(2009)	60
4. 생태정의 소책자 시리즈 - 1. 생태정의와 에너지 전환	66
5. 생태정의 소책자 시리즈 - 2. 생태정의와 GMO	74
6. 생태정의 소책자 시리즈 - 3. 생태정의와 미세먼지	82
7. 생태정의 소책자 시리즈 - 4. 생태정의와 기후위기	90
8. 생태정의 소책자 시리즈 - 5. 생태정의와 생명의 다양성	100
9. 생태정의 소책자 시리즈 - 6. 생태정의와 기후행동	110

III. 단체 조직 보고 / 12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한국교회 탄소중립 캠페인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

설명회 및 협약식

1 행사개요

1. 일시 : 2022년 2월 21일(월) 오전10시
2. 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그레이스홀)
3. 목적 : 가. 69개 노회 9,341 교회의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을 위한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캠페인 참여를 선포한다.
나. 제77회(1992년) 총회 시 채택한 “경건 및 절제운동 지침서”에 근거한 제107회 총회 ‘기후대응지침서’ 채택의 기조로 삼는다.
4. 주최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2 행사내용

시 간	소요	내 용	담당자
10:00~10:10	10	여는 기도 및 취지 설명(동영상) 기후위기 대응 총회 결의문 낭독	부총회장 이순창 목사 기후위기위원회 위원장
10:10~10:20	10	협약식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 남선교회전국연합회 • 여전도회전국연합회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총 회 장 류영모 목사 회 장 강찬성 장로 회 장 최효녀 장로 공동대표 안홍택 목사
10:20~10:35	15	캠페인에 대한 신학적 설명 기후위기와 교회의 책임	배현주 교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공동대표
10:35~10:50	15	캠페인에 대한 실천적 설명 한국교회 탄소중립 캠페인	이진형 목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10:50~11:00	10	다음세대의 요청 다음세대와 기후위기	한려원 동부광성교회, 혜성컴벤션교 2학년
11:00~11:05	05	지지의 말씀 한국교회 탄소중립 캠페인 지지 말씀	김정욱 교수 외교부 환경협력대사
11:05~11:10	05	함께 드리는 기도	도영수 목사 총회사회봉사부 부장
11:10~		기후행동	다같이

기후 위기 대응 총회 결의문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신명기 30장 19절)

우리는 성 삼위 하나님만이 우주를 지으신 유일한 창조주요 모든 생명의 보존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에서 물, 토지 그리고 기후 등에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성장을 향한 무한한 욕망은 지구생태계를 파괴하여 기후 위기라는 응보적 사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제6차 보고서를 통해 지구 평균기온이 2040년 이전에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하게 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기후변화가 1.5도 선을 넘으면 ‘이상기후’는 우리의 일상이 되고 다양한 생물 종은 멸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후 위기는 식량 위기, 기후난민 증가, 미래세대 불안 등 사회적 불안과 불평등을 가속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후 위기는 생존의 문제이며 동시에 중대한 신앙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의 위기를 통렬히 느끼며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는 결단합니다.

하나. 우리는 무한한 풍요의 욕망에서 벗어나 경건과 절제에 근거한 개혁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과도한 소유의 탐욕에서 벗어나 생태 영성에 근거한 청지기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과 탄소 경제시스템에서 벗어나 탈 탄소 전환에 근거한 선지자적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실천합니다.

총회는 기후 위기 대응 정책과 실천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노회는 총회의 정책과 지침에 따른 기후 위기 대응 행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교회는 예배, 교육, 봉사, 교제, 선교 등 모든 영역에서 기후 위기 대응 행동을 실천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성육신의 터전이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겸허히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기후 위기 앞에서 정의로운 생태적 전환을 결단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피조물의 신음을 들으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한국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 남선교회전국연합회 -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업 무 협 약 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기후 위기 대응을 우리의 시대적 사명으로 고백하며 창조세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한국교회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원칙)

협약자 간 상호 '동반자적 관계'로 성실하게 협력하고, 협약 내용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3조(업무협약 주요내용)

1. 협약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2. 협약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 캠페인 진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개발과 교육에 상호 협력한다.

제4조(효력)

본 협약은 협약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고, 일방이 해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지속되며, 상호 협의에 의해 개정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5조(상호협의)

구체적인 협력사항과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 및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는 실무협의 등을 통해 상호 협의한다.

제6조(협약서 보관)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인하고 대표자가 서명한 후, 협약서 4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02월 21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류 영 모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대표 양 재 성



여전도회전국연합회

대표 최 효 녀



남선교회전국연합회

대표 강 찬 성

캠페인에 대한 신학적 설명

기후위기와 교회의 책임

성서적·신학적 이해

배현주 교수/기독교환경운동연대 공동대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31)

“모든 이들로 하여금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간주하게 하라.

그러면 방종하게 처신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존하라고 요구하시는 것들을 남용해서 망가뜨리지도 않을 것이다”

(존 칼빈, 1509-1564)

“당신이 상쾌한 시냇물과 야생 조류의 거처를 파괴하면,

백만 개의 꿈을 살육하는 것이고 하나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다”

(존 드링크워터, 1882-1937)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한다”

(마하트마 간디, 1869-1948)

I. 우리 시대의 표징

우리 모두의 집(오이코스)인 이 아름다운 행성 지구의 생태 균형이 무서운 속도로 깨지고 있다. 45억년 역사를 지닌 지구는 그 장구한 세월 동안 기후의 안정성을 지니고 살아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지난 수백 년 간, 자연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개발과 무분별한 산업발전으로 인해서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미 1960년대부터 북극의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자외선에서 우리를 보호해줄 대기 오존층이 파괴되었다.

환경 파괴에 대처하는 노력도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70년 4월 22일에는 ‘지구의 날’이 제정된다. 1972년에는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uman Environment)가 ‘하나뿐인 지구’라는 슬로건으로 스톡홀름에서 개최되었다. 지구 환경 위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발한 최초의 주요한 국제회의였다. 같은 해 유엔환경 계획(UNEP: UN Environment Program)이 설립되었다. 유엔환경계획은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 5일을 ‘세계환경의 날’로 제정하였다. 1988년 유엔의 전문기관인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에 의해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설립되었다.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개최되었다. 세계 정상들이 모여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함으로써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 Framework Convention Climate Change)을 채택하였다. 기후변화협약(UNFCCC), 생물다양성협약(UNCBD), 사막화방지협약(UNCCD)은 유엔의 3대 환경협약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리우회의 이후 1995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를 개최하고 있다. 1997년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를 채택했으나 구속력이 없었다. 2015년 제21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한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의 단점을 보완하는 보편적인 첫 기후합의였다. 반기문 유엔 제8대 사무총장의 재직 기간(2007-2016) 중에 채택된 협정이었다. 파리협정에서는 처음으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섭씨 2°C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목표 온도를 지정하였다. 그런데 2019년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8차 IPCC 총회에서는 평균기온 상승폭을 2°C가 아니라 1.5°C로 억제해야만 파국의 길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2021년 IPCC 6차 보고서는 지구 기온이 지금부터 2040년 사이에 1.5°C 이상 오를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2050년을 임계점으로 보았던 과거보다 10년 앞당겨진 충격적인 시간표이다. 11월 초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당사국총회는 환영할만한 결정 사항들도 불구하고, 지구촌의 기후비상 사태를 극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망스러운 결과다.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지난 수십 년간 공해, 미세먼지, 환경오염 등 경계의 알람이 여기저기 지속적으로 울렸다. 산불, 가뭄,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한 지구촌의 신음 소리가 점차 커졌다. 그동안 보통 사람들 곧 평범한 시민들은 정부가 있고, 과학과 기상의 전문가들도 있고, 기업 윤리도 있고, 유엔도 있고, 국내외 환경 관련 기구들도 있으니 세상이 상식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 굳이 나까지 관심이 될 필요는 없지 않나 방임하며 개인적 일상을 살아온 것이 아닐까 싶다. 사회의 존속 자

체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면, 국내외 리더십 네트워크에서 현장과의 대화를 통한 개선과 보완의 정책이 진행되고 있겠거니 믿은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런 만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충격을 감출 수가 없다. IPCC 연구에 관련한 어느 과학자는 인류에게 지금 당장 온난화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기술적, 정치적인 역량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 지적도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나노과학, 유전자 복제, 핵물리학, 우주 탐험, 인공지능 등 무소불위의 지능을 과시하는 과학기술의 시대에, 정작 인류의 생존에 가장 필요한 기술적 역량은 개발하지 못했다는 고백은 묘한 기분을 자아낸다. 생태학자들과 기후과학자들이 인류의 집인 지구의 건강과 안녕 문제를 경고해온지 오래 되었건만, 정치와 경제의 리더십은 편협한 단기적 이해관계에 빠진 관성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지난 20세기 후반부 엄청난 민중의 희생을 딛고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민주주의를 쟁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인류의 생존을 보장하는 정치적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 역시 무언가 허를 찔린, 그것도 단단히 찔린 느낌이다. 분명한 것은 기후위기가 제기하는 난제를 경시해 온 생태낙관론자들의 입장은 오류요 기만이라는 사실이다.

기후위기가 인류의 전화위복이 될 수 있으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인슈타인은 “문제를 유발한 그 동일한 의식으로는 그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우리의 의식과 삶이 근원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워하는 일상을 맘껏 누릴 수 있는 문이 다시 활짝 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에게 새로운 문명이 필요하다. 우리의 뉴 노멀에는 대규모 재난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정도로 역사와 과거의 교훈을 충분히 체화한 집단지혜가 담겨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의 원인이기도 한 기후위기는 지난 수백년간 인류가 편협한 인간중심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에 함몰된 결과, 탐욕을 탐욕으로 깨닫는 분별력조차 상실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제는 전통적으로 성스러움과 신비의 상징이었던 우주조차도 인간의 무한한 탐욕의 시장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성서는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부른다. 이제는 멈춰 서서 과연 누구를 위한 발전이고, 무엇을 위한 개발인지 물어보아야 한다. 만민의 인간안보를 수립하고 다차원적인 면역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식과 삶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물적·인적 자원을 만민의 풍성한 생명을 위한 생태정의와 평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집단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 세상을 기계적으로만 분석하고, 사회를 시장으로만 파악하는 관점은 새로운 문명의 철학이 될 수 없다. 온 세상은 생명의 그물로 이루어져있으며, 사회는 시장이기 이전에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들의 공동체들이다. 현대과학은 서로 상호 작용하며 변화의 과정 속에 있는 실재,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무한한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관계 속의 세계를 드러낸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의 원인이기도 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일은 지구촌의 과제이자

만민의 과제이다. 어느 기후 전문가의 말처럼 지도자들이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이다. 우리는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신명기 30:19)는 말씀이 제시하는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다. 교회는 부지불식간 탄소 발자국을 만들면서 사망과 저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집단적 관성을 깨닫고 방향을 바꾸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한국의 인구 17%-20%에 해당하는 교회가 초록 발자국으로 살아가는 방법, 그래서 생명과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을 공부하고 실천한다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총체적 변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영향력 있는 중요한 교단인 우리 총회가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와 함께 기독교환경운동연대를 초청해서 탄소중립 캠페인을 선도하는 오늘의 행사는 매우 뜻깊은 역사적 자리가 아닐 수 없다. ‘교회의 책임’을 짊어지겠다는 섬김의 리더십을 선포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책임(responsibility)이란 단어는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역량’(response + ability)이다. 오늘 우리는 피조세계의 청지기요 세상의 파수꾼으로서의 책임을 자각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이다.

II.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성서적·신학적 이해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은 종교개혁 전통의 최선의 정신을 요청한다. 종교개혁자들에 의하면 “전통주의는 산 자들의 죽은 신앙이요, 전통은 죽은 자들의 산 신앙”이다. 종교개혁자들은 살아있는 신앙의 힘과 생명력 있는 전통에 입각해서 맹목적인 전통주의, 교리주의, 형식주의를 타개하고자 하였다. ‘한 번 개혁된 교회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개혁하는 교회’는 종교개혁의 모토이다. 이 정신에는 개신교의 본질로서의 운동성이 담겨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해야 한다. 성서는 신앙의 운동성을 증언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다”(히 4:12). 살아있는 신앙의 운동성과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한국교회의 그런 엑소더스는, 믿음의 눈으로 보자면, 그 동안 신앙생활에서 충분히 소화하지 못했던 성서의 다양한 주제들을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신앙적 성장과 성숙의 은혜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우선 기후위기 대처에 중요한 주제들을 간략하게나마 짚어보기로 한다.

1. 종말론적 각성: “깨어 있으라”

우주적 파국을 묘사하는 성서의 묵시문학적 종말론의 언어들은 역사상 이단 종파들의 교리로 오용되고는 하였다. 종말의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는 신흥교주들을 따라서 가정과 사회를 떠나 자신들만의 구원을 위한 분리주의적 공동체를 이루고는 하였다. 그러나 정작 신약성서는 종말의 시기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때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만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할 일은 깨어있는 것이다. 신약성서에서 소묵시록으로 분류되는 마가복음 13장의 결론 부분의 초점은 “깨어 있으라”는 권고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막 13:32-27). 이 짧은 본문 속에 “깨어 있으라”는 당부가 네 번이나 반복되고 있다.

깨어 있는 상태는 통상적으로 잠, 졸음, 좁고 편협한 생각이나 망상에서 벗어난 상태이다. 성서적 관점에서는 죽음 같은 불신앙에서 벗어난 상태이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엡 5:14)는 말씀은 믿음 안에서 깨어 있는 상태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가는 신앙인의 기본적인 의식임을 보여준다.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시대의 표징을 분별할 수 있다.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눅 12:56-57).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깨어 있을 때,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한국교회 탄소중립 캠페인은 기후위기 시대에 깨어 있는 교회의 선택이다. 기후위기가 인재임이 분명한 현재의 상황에서도 유아적 이거나 위험한 신앙 양태가 곳곳에서 난무하고 있다. 도피주의적 종말론이나 무관심과 무책임을 정당화하는 값싼 은혜의 신학을 경계해야한다.

2. 개(메타노이아)

현대 세속사회에서 우리의 정신과 마음은 인간의 죄와 악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둔감해져있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의 복음 전파의 첫 외침은 회개하라는 요청이었다. “때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막 1:15). 기후위기를 초래한 무분별한 자연 착취 배후에는 한계를 모르는 인간의 탐욕이 놓여 있다. 성경은 인간의 수많은 죄악 중에서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규정한다(골 3:5; 엡 5:5).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께서는 동시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눅 12:15)고 하셨다.

인간의 교만과 어리석음에서 빚어지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다. 바벨탑 이야기가 대표적인 이야기일 것이다(창 11:1-9). 옹은 솔개나 맹수도 찾지 못하는 지하와 바위를 뚫고 들어가서 온갖 보화를 캐내는 고대의 기술공학적인 지능을 발휘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슬기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욥 28:12) 하고 되묻는다. 그리고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욥 28:28)라고 한다. 인류의 발전에 과학이 기여한 공헌이 지대하지만, 전쟁의 효율성이라는 원리만을 따라서 첨단기술과 무기를 결합하는 것은 가공할만한 악의 영역에 들어서는 것이다. 살인 금지는 십계명 중 하나이다(출 20:13). 카인은 마음의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형제 아벨을 죽이고 땅의 저주를 받았다(창 4).

신약성경은 사람 마음에 스며든 미움까지도 살인이라고 지적한다(요한1서 3:15). 인류는 참혹한 세계대전을 두 번이나 겪고서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했다. 갈등과 분쟁을 대화와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군사적 긴장 고조 그리고 민간인까지 포함한 무수한 인명 피해에 대해 여전히 무감각하다. 핵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할 뿐 아니라, 인공지능을 장착한 킬러로봇까지도 서슴지 않고 개발하고 있는 형편이다. 무기는 미움, 관계 단절, 헤게모니 욕망과 정복욕의 상징 아닌가. 교만과 미움은 쌍둥이이다.

과거 공상과학 픽션에서나 가능할 법한 일들이 현실화되어 가면서 인간은 스마트 하다 못해 거의 전지전능한 ‘호모데우스’로 승격하고자 한다. 그러나 오늘날 기후위기는 인간이 실상 ‘헛똑똑’임을 보여준다. 어떻게 인류 생존의 기본이 되는 ‘집’의 붕괴도 예측하지 못하고 무분별한 개발과 경제성장 제일주의로 질주할 수 있었던 말인가. 지구의 한계를 무시하면서 무한한 성장을 부추기는 욕망은 ‘헛똑똑’일 뿐만 아니라, 어리석기 그지없

는 소위 자살골임이 드러났다. 지구는 인류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자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탐욕을 충족시킬 수 없는 유한한 세계이다.

기후위기는 생명과 자연에 대한 경외, 이웃에 대한 공감과 사랑이 견비되지 못한 지식 정보, 기술공학, 자본주의가 어떤 한계를 지니는지 여실히 드러낸다. 기후위기는 그동안 인류에게 누적된 마음의 위기, 영혼의 위기의 결과이기도 하다. 죄와 악에 대한 투쟁은 각자 자신의 영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마틴 부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단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원시적 성향과 나르시시즘의 위험을 간파하고 우리 각자 개인의 영혼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되어야 한다. “인간성을 변화시킬 생각은 누구나 한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는다”(톨스토이). 신약성서의 언어인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마음과 영혼, 삶과 습관을 전적으로 전환하는 회개와 참회를 뜻하는 동시에 ‘더 큰 마음으로 들어간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한국교회 탄소중립 캠페인은 인생의 방향과 방식을 전환하는 겸허한 회개, 그리고 자기 비움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더 큰 마음을 담는 노력이 있을 때 힘을 얻을 것이다(눅 11:24-26; 빌 2:5-11).

3. 예수의 생태영성과 바울의 우주론적 신앙

종교개혁자 루터에 의하면 “하나님은 성서에만 복음을 남기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나무들 위에, 꽃들과 구름과 별들 안에도 복음을 기록하셨다.” 성서가 ‘듣는 말씀’이라면, 자연은 ‘보는 말씀’이다. 우리는 특별계시를 강조하다가 일반계시의 중요성을 소홀히 하게 되었다. 적색은총을 강조하다가 녹색은총을 경시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값 없는 은총에 감사하는 신앙과 창조세계의 은총에 감사하는 생태적 우주론적 신앙 감각이 이제는 균형을 찾아야 한다. 십자가 영성과 생태영성 혹은 창조영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정작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연을 관찰하고 묵상하는 생태영성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고 믿음과 사랑의 진리를 파악하셨다.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예수의 근원적인 생태영성을 엿볼 수 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마 5:44-45).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마 6:26-29). 태양과 비,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이 모든 자연의 소재들이 예수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무조건적 사랑을 체험하는 생태영성의 학교였다. 그런 만큼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불(눅 12:49), 풍요롭고도 자비로운 대지의 흙(막 4:8), 자유롭게 부는 성령의 바람(요 3:8),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요 4:14; 계 21:6) 등 자연의 소재로도 쉽게 표상할 수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접하는 땅, 바람, 불, 물 등 자연과 우주의 소재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소산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를 가리키는 신비로운 소재이기도 하다. 성만찬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 역시 창조의 소산으로서 새로운 창조를 가리키고 있다.

갈릴리 농촌을 배경으로 살았던 예수와 달리 사도 바울은 도시가 인생과 활동의 배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신비를 우주적 차원에서 파악하는 안목을 잃지 않았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고전 6). 부활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는” 완성의 때를 종말의 비전으로 제시한다(고전 15:28).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엡 1:23). 만물의 위기인 기후위기 앞에서 바울의 우주적 그리스도론과 우주적 교회론의 의미를 새롭게 파악할 때, 교회는 개인에만 국한되는 구원론과 개교회주의를 벗어나서 인류를 위한 교회의 존재 의미와 신앙운동의 범위를 재포착할 수 있게 된다.

4. 안식년과 희년 사상

레위기 25장에는 성서의 안식년과 희년사상이 감동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레 25:4-7). “너희는 오십 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오십 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레 25:10-12). 레 25장에 담겨 있는 노예 해방, 빚 탕감 등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사상, 그리고 들짐승과 땅에 대한 배려는 기후정의를 위해서 추구해야 하는 생태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노력에 위대한 영감을 준다고 하겠다.

모세 오경에 담긴 희년 사상은 예언자 이사야의 핵심 비전이기도 하였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사 61:1-3).

누가복음은 희년 사상이 반영된 예수의 나사렛 회당 설교를 공생애 시작에 소개한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눅 4:16-19). 예수는 자신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 정신을 희년과의 연속성 상에서 선포하셨다.

5. 출애굽 교회로서의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후 초대교회가 로마제국 치하에서 급성장하는 과정은 마치 마른 짚더미에 불이 붙는 것 같은 형국이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놀라운 복음 증언과 발전의 배후에는 성령의 강림이 있었다고 증언한다. 단순한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었기에 초대교회는 박해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증언하였다. 성령의 임재를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사도행

전은 바람과 불, 곧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적 기운들이 진동했다고 기록한다. 마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다고 고백하는 것과도 같다(행 2:1-13; 고후 5:17).

예루살렘 초대교회에는 교회 생활의 중요한 요소들인 복음의 선포(케리그마), 가르침(디다케), 성도의 교제(코이노니아), 봉사(디아코니아)가 모두 활발하였다(행 2-6). 초대교회 사도들과 교우들은 증언과 순교(마르티리아)를 불사하였다(행 4-5, 7; 12:2).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2:42).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서는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가능하지 않던 일들이 가능해졌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다(행 2:44-45).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행 4:32).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다(마 6:24). 성령이 주시는 자유의 능력과 이웃 사랑이 있을 때 재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만이 아니라 사랑과 나눔의 기적들도 일어났다. 초대교회는 세상의 맘몬 숭배적 가치관과는 질적으로 다른 공생공락의 대안사회였다.

초대교회는 로마제국의 가치관에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였다. 누가는 변화산상에서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이 곧 그의 ‘출애굽(엑소더스)’라고 명시한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엑소더스)을 말할새”(눅 9:31). 표준새번역 성경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으로 번역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사건 이후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의 삶은 로마제국의 이상숭배적 문화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라이프스타일과 공동체 문화를 이룩하는 순례자들의 신앙운동이었다. 기후위기 시대 ‘그린 엑소더스’, 곧 녹색 출애굽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에는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 그리고 공생공락의 문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6. 기도의 중요성

그린 엑소더스를 위해서는 뿌리 깊은 기도의 힘이 필요하다. 예수는 방탕과 술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마음이 둔한 상태에 빠져있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권고한다(눅 21:34-36). 자연 생태계의 위기는 인간의 영적·정신적·도덕적 위기와 맞

물려있다. 단순성, 절제, 내면의 훈련, 사랑에서 비롯하는 자발적인 희생정신이 일상생활에 다시 회복되어야, 개인주의, 소비주의, 쾌락주의 등을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동력이 생겨날 수 있다. 일관성 있는 기도 생활의 열매가 필요하다.

코로나 기간의 역경을 통해서 오히려 인생의 단순한 진실들이 드러난다. 사회가 유지되는 데 꼭 필요한 필수 인력이 누구인지도 드러난다. 코로나 기간에 교회가 예배당 건물 이 아니라 신자들의 교제요 공동체라는 본질적인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목회자들도 있다. 우주의 어느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듯이(롬 8:38-39), 우리가 홀로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도 드러난다. 이웃들과 쉽게 만날 수 없고 예배조차도 집합금지 조치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 시기에 우리는 골방의 문을 닫고 기도할 수 있다(마 6:6). 우리의 통상적인 기도 생활은 찬양, 회개, 감사, 간구, 중보로 구성된다. 첫머리의 찬양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특히 자연에 대한 올바른 응답이다. 자연은 인간이 사용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기후위기 시대 영성가들은 자연을 응시하고 관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연묵상기도를 강조한다. 기도야말로 개인적·교회적·사회적으로 죄와 악의 세력에 저항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룩한 통로를 만드는 궁극적 힘이다. 기후위기 시대는 실천을 필요로 한다. 기도야말로 우리의 실천을 단순한 행동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되도록 할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질병, 경제적 타격, 관계의 문제 등으로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참 많다. 코로나 우울, 기후우울, 생태슬픔 등의 심리적 동굴에 갇혀 말없이 무기력과 절망, 도피와 체념이라는 정서적 늪으로 빠져드는 이들도 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성서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절실하다. 우리의 기도는 개인과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생태계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기도로 깊어지고 확장될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가 ‘공동운명체’이기에 이웃과 자연의 안녕에 관심을 가지는 사회적 우주적 영성의 기도가 필요하다. 남녀노소 특히 어린이들과 미래 세대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한반도, 만민과 만물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 교회에서 드리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는 이미 한반도를 넘어서 지구촌을 위한 기도이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올해 한국교회 그린 엑소더스 릴레이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치유와실천의 길로 인도하는 지역교회들의 기도운동을 촉발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¹⁾

1) 세계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현실 속에서 미국 내에서는 “기후 위기를 멈추기 위해서 군사주의부터 종식하자”는 시민 사회의 캠페인도 벌어지고 있다. 전쟁과 군사적 대결 때문에 쏟아 붓는 천문학적 금액의 예산을 탄소중립 경제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는 경제를 위한 예산으로 전환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한국교회를 잘 아는 해외 에큐메니칼 평화운동가가 있다. 유엔에서

7. 사랑의 힘

기독교는 사랑(아가페)의 종교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34-35). 사랑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힘이다(요일 4:18).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심을 강조하는 요한일서는(요일 4:8, 16), 우상을 멀리하라는 권면으로 마감한다(요일 5:21).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곳에서는 사랑이 식기 때문이다. 종말의 재난에는 여러 특징들이 있다. 많은 이들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게 된다(마 24:10-12). 죽음에 대한 사랑(네크로필리아)이 성행한다. 생명에 대한 사랑(바이오�필리아)에는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 시대의 심리적 병리현상이 나르시시즘이다. 자신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는 나르시시스트는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모르는 존재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도 사랑하지 못한다.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사랑의 길로 인도하는 겸손이 없다.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은 이제 협소한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서 자연을 포함하는 우주저적 지평에서 소화될 필요가 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 22:37-40).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에는 자연도 포함된다. 기후위기 시대 자연과 생태계야말로 강도 만나 쓰러진 이웃이기 때문이다.

부지불식간 석탄중독, 소비주의와 이기주의의 관성에 빠져드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더 깊은 차원의 의식을 일깨우는 영성적 의지가 필요하다. 신앙과 과학이 함께 증거하는 생명의 신비는 바이오필리아 곧 생명 사랑의 세계로 우리를 부른다. 생명을 복돋는 사랑에 대한 영성적 의지야말로 카이로스 시대를 맞이한 우리들의 공통분모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조시마 장로는 다음과 같이 권면한다.

해무기철폐조약을 통과시킨 공로로 2017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ICAN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일하는 분이다. 주일이면 교회 성가대 봉사를 거르지 않는 노인이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한국에는 전쟁의 비극을 몸소 겪은 분들도 많고 교회도 많아서 평화운동이 불일 듯 일어날 법한데 그렇지 않은 것이 신기하다는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 생명평화운동은 교회의 기도운동이 전제되어야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십시오
세상 모든 것들을,
모래 한 알에 이르기까지 사랑하십시오
나무 잎사귀 하나,
하나님의 햇살의 하나까지도 사랑하십시오
동물을 사랑하십시오
식물을 사랑하십시오
만물을 사랑하십시오

올해 8월 31일-9월 8일까지 독일 칼스루에에서 개최될 세계교회협의회 제11차 총회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는 신앙고백이다.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총회를 준비하고 있는 독일교회는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 순교했던 신학자 본회퍼 목사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고 있다.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값비싼 은혜에 대한 산 증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다. “한 민족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부르는 교회는, 바로 그 사람들 가운데서, 타오르는 사랑의 불, 화해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모든 미움을 소멸하고, 교만하고 증오에 찬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불의 공급원이어야 합니다.”

이제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사랑의 힘에 기초한 생명과 평화의 새로운 문명이 필요하다. 기독교는 세상을 파멸로 몰고 가는 악의 세력에 저항하는 거룩한 사랑의 운동이다.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사랑만이 미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마틴 루터 킹). 실제적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치적 의지가 미비할 때, 정신적·영성적 의지에 그 닻을 내린 사회적 의지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의 생명의 터전인 자연과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미래 세대의 생명권을 보장하며 모두를 위한 공생공락의 길을 찾아야 하는 시대이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있는 사랑의 힘이 회복되어야 하는 시대이다

III. 녹색성서(The Green Bible) 소개

기후붕괴라는 역사상 미증유의 상황과 직면하면서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여러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하나님은 녹색이신가? 예수는 환경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지구

를 돌보는 일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일찌감치 지니고 지구생명 살리기에 깊은 관심을 지니고 헌신하던 미국 기독교인들이 ‘녹색성서’(The Green Bible)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신학자들, 저술가들, 과학자들, 교회 지도자들, 기독교 기후운동 단체 대표들, 평신도 활동가들 수십 명이 참여하였다. 신학적 성향으로는 보수와 진보를 망라하고, 교파적으로는 개신교, 카톨릭, 정교회를 망라하는 복음주의적 에큐메니칼 원칙이 돋보인다. 구약성서의 창조신학에 관해서는 유대교 신학자의 견해를 경청한다. 종교 간의 대화가 전제되어 있다. 창조와 진화에 대한 입장에서 차이가 있는 사람들도 함께 모였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2008년 녹색성서가 출간되었다. 성서 번역본들은 대다수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을 붉은색으로 인쇄하는 ‘적색 활자본’들이다. ‘녹색성서’는 이런 관행에 따라서, 지구의 환경 위기에 직면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관해 알려주는 말씀들을 선정해서 녹색으로 인쇄하였다. 머리말은 데스몬드 투투(1931-2021)가 썼다. 1984년 노벨평화상의 수상자이자 남아프리카공화국 진실과 화해위원회(TRC)의 초대위원장을 지낸 남아프리카 공화국 성공회의 전 대주교이다. 그의 머리말을 여기에 옮겨본다.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우지 않고서는 사람으로 사는 법, 곧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사고하고, 걷고, 말하고, 먹는 법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인간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사람다움을 배웁니다. 성서에 의하면, 우리는 이렇게 인간 가족과 함께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공동체, 함께 하는 삶, 우정은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서로 보완하도록 만들어졌고, 그래서 상호의존의 네트워크 안에서 살아가도록 지어졌습니다. 우리의 차이 때문에 각자가 지닌 고유한 선물들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 존재의 근본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 법칙을 조롱하거나, 온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끗한 물, 안전한 환경, 버젓한 거처, 충분한 식량을 확실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실패하면, 모든 종류의 일들이 끔찍하게 잘못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의 인간 가족,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으로 창조되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바로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도덕적 의무에 대해 깨어나야 합니다.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들입니다. 이들은 가뭄, 고온, 해안 도시들의 범람, 그리고 기후위기에선 유례하는 보다 심각하고 예측 불가능한 이상 날씨들에 의해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취약하고 망가지기 쉬운 우리의 집을 잘 보존하는 책임적 청지기로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모한 소비주의를

통해서 방종하게 낭비하며 살았으며, 대체불가능한 자연 자원들을 꿀떡 삼켜버렸습니다.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가족에게 인간친화적인 방식으로 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또한 자연친화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하는 ‘녹색성서’를 읽게 될 때, 하나님께서 새, 물고기, 동물들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자신의 감독관으로 삼아 모든 형태의 생명을 향하여 “자비롭고 부드럽게” 행동하도록 창조하셨음을 발견합니다. 취약하고 아름다운 지구라는 우리의 집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의 청지기들입니다. 우리는 방종하고 무책임할 수도 있고, 돌봄을 베풀며 자비롭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았다.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여라”(신명기서 30:19)

기독교 신앙과 성서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평화, 곧 분리시키는 벽을 허무신 분으로 묘사됩니다. 예수는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암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요한복음12:32). 예수는 이 우주적 포용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온 우주를 하나로 감싸 안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가 행하신 지고한 일은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고 상호간에 화해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와 진정으로 화해시키는 일입니다. 새로운 종류의 세상을 이루는 일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전체가 보다 많은 자비, 보다 많은 부드러움, 보다 많은 돌봄, 보다 많은 웃음, 보다 많은 기쁨을 누리는 세상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도와주게, 나를 도와주게, 내가 나의 꿈을 실현하도록 나를 도와주게.” 감사합니다.

IV. 그린 엑소더스를 위한 대각성 운동

1907년 나라의 국운이 쇠망할 때 일어났던 평양대부흥 운동은 영적 대각성운동이었다. 민족이 주권을 상실한 고난의 시기에 이 땅의 풀뿌리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중적 고난을 헤쳐 나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기반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기반 위에서 기독교는 1919년 삼일운동에 적극적 참여를 하였다. 한국교회는 조선의 독립, 동양과 세계의 평화라는 대의를 위해서 민족적 리더십을 발휘하였던 삼일운동의 모체로서, 세계교회에 영감을 주는 예언자적·정신적 유산을 지니고 있다. 전 지구촌이 기후위기와 생물 멸종의 위기의 시대에 직면하는 이즈음에 그린 엑소더스를 위한 새로운 영적·정신적·실천적 대각성운동이 필요하다고 느껴진다.

유엔의 과학적 경고에 의하면 우리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약 45% 삭감해야 한다. 이 짧은 기간 대한민국은 기후약당국가에서 기후선도국가로 환골탈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우리 삶에 깊숙이 파고 든 화석연료 중독, 소비주의 중독에서 빠져나와, 지속 가능한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는 혁명적 변화의 절박하고 시급한 요청 앞에 서 있다. 정치와 경제, 무엇보다도 몸과 마음과 생각의 관성을 사회집단이 함께 바꾸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만민의 성찰과 관심, 그리고 민주적 참여가 절실한 시점이다. 정치적 의지, 사회적 의지, 정신적·영성적 의지 모두가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이 공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삼섹터인 교회와 시민사회가 도덕적 압력을 계속 부여하며 사회적 의지를 발현해야 한다. 기후위기 극복 과정이 사회적 안전망, 민주주의, 인간안보를 견실하게 하는 사회적 발전 과정이 되어야 한다. 전국 방방곡곡에 싹틔줄처럼 퍼져있는 지역교회와 노회의 교육과 운동을 위해서 수도권 총회와 평신도 전국연합회들의 역할은 실로 중차대하다. 결국 우리의 경제가 탄소중립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 가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으로나 전사회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갈 마음과 자세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마 7:13-14). 우선적으로 생명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들부터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을 함께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친절하게 인도하는 교회의 리더십이 요청된다. 한국교회 탄소중립 캠페인에 큰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우리 사회에서 산업화로 인한 공해가 사회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한 1982년 한국공해문제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독일 기독교의 도움을 받아서 시작된 한국 최초의 에큐메니칼 환경단체이다. 이제부터 모두 걸어가야만 하는 길을 40년 전에 먼저 걷기 시작한 선구적 공동체이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한국교회 환경연구소, 녹색교회 네트워크, 기독교환경교육센터 등 기후위기 시대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앞서 고민하고 실천하는 길잡이 리더십들이 계속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세계교회 에큐메니칼 운동 영역은 높은 네트워크 지수(NQ: 공존지수)를 지닌 민간외교의 장이기도 하다. 기후위기 시대 예장 통합 교단은 탄소중립 캠페인의 성공적 실천을 통해서 국내 사회에 교회의 존재감을 새롭게 함과 동시에 세계교회에도 선도적인 영감을 주는 공헌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기후비상 카이로스의 객관적 현실을 냉철하게 직면하면서 나이브한 낙관론이나 무책임한 비관론에 빠지지 않고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 내어야 한다. 교회의 연합된 리더십이 꼭 필요하다. 교회가 복음의 기쁨과 능력,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터전에 든든한 뿌리를 내리고, 기후 위기 시대 자연과 만물이 신음하며 기다리고 있는 변혁의 마중물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사회의 신뢰와 존경을 회복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캠페인에 대한 실천적 설명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

이진형 목사/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기후 미식 (Climate gourmet)

‘기후미식’은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강한 식생활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 4:34)**

식품의 생산과 운송, 보관, 폐기 과정에서 많은 양의 탄소가 배출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는 전체 탄소 배출 의약 22%를 차지합니다.
우리의 밥상에서 배출되는 탄소는 줄이고 건강을 살리는 기후 미식을 실천합시다.



채식에 참여합시다

- ! **집에서** :채식에 참여하고 채식을 늘여갑시다.
- ! **교회에서** :채식 중심의 공동식사를 준비합시다.
- ! **지역사회에서** :공공급식에서 채식을 확대하도록 합시다.

로컬푸드를 확대합시다

- ! **집에서** :탄소배출이 적은 로컬푸드를 이용합시다.
- ! **교회에서** :도시·농촌 교회가 로컬푸드 교류에 나섭니다.
- ! **지역사회에서** :로컬 푸드 매장과 식당 운영을 확대합시다.

슬로우 패션 (Slow fashion)

‘슬로우 패션’은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패션 문화입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यो” (눅 3:11)

옷을 생산하고 유통, 소비, 폐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탄소가 배출됩니다.

또한 합성섬유로 만든 옷은 세척과 폐기하는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을 배출합니다.

이제 우리의 옷장을 유행을 따르기 위한 ‘패스트 패션’ 대신 생명의 가치를 입는 ‘슬로우 패션’으로 채웁시다.



소박한 옷장을 만듭시다

- ! **집에서** : 친환경적인 옷을 필요한 만큼만 구매합시다.
- ! **교회에서** : 안 입는 옷을 서로 바꾸는 자리를 마련합시다.
- ! **지역사회에서** : 녹색가게 운영을 확대해 나갑시다.

재활용(Up-cycling)을 합시다

- ! **집에서** : 옷수선과 리폼을 생활화 합시다.
- ! **교회에서** : 재활용 정보를 공유하고 안내합시다.
- ! **지역사회에서** : 재활용 공방 운영을 확대해 나갑시다.

미니멀 라이프 (Minimal life)

‘미니멀 라이프’란 불필요한 물건을 줄여 탄소배출을 줄이는 삶의 태도입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요 6:12)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은
생산, 구매, 소비의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합니다.
또한 물건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쓰레기가 나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덜 사고 오래 사용합시다

- ! **집에서** : 꼭 필요한 물건만 구매합시다.
- ! **교회에서** : 나에게 불필요한 물건을 서로에게 나눠줍니다.
- ! **지역사회에서** : 공공기관에서 탄소배출이 적은 제품을 구매합시다.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에 참여합시다

- ! **집에서** : 제로 웨이스트 가게를 이용합시다.
- ! **교회에서** :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다회용품을 준비합시다.
- ! **지역사회에서** : 제로 웨이스트 가게 운영을 확대해 나갑시다.

녹색 교통 (Green transport)

‘녹색 교통’이란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교통 수단입니다.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막 16:12)

내연기관 자동차는 탄소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물질도 배출합니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도 아직까지는
화석연료로 만든 전기와 수소를 사용하기에 탄소를 배출합니다.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자전거와
공공교통을 이용하여탄소배출을 줄입니다.



자전거를 이용합시다

- ! **집에서** : 일상생활에서 자전거를 이용합시다.
- ! **교회에서** : 자전거 주차장과 수리함을 설치합시다.
- ! **지역사회에서** : 자전거 편의시설을 확대해 나갑시다.

공공교통을 이용합시다

- ! **집에서** : 버스, 기차 등 공공교통을 이용합시다.
- ! **교회에서** : 자동차 없는 날을 정하고 알립니다.
- ! **지역사회에서** : 공공교통 이용을 확대해 나갑시다.

그린 에너지 (Green energy)

‘그린에너지’는 탄소배출이 없는 친환경적인 재생가능 에너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야 1:17)**

오래된 냉난방 기기의 효율을 높이고
적정한 냉난방 온도를 유지하면 상당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확대로 기존 탄소배출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스마트한 에너지 소비자인 동시에
그린 에너지를 생산하는 생산자가 되어
탄소 배출을 줄입니다.



에너지 소비를 줄입니다

- ! **집에서**: 냉온열 가전제품을 적절하게 관리합니다.
- ! **교회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적정 온도를 유집합니다.
- ! **지역사회에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알리고 활성화합니다.

햇빛발전소를 설치합니다

- ! **집에서**: 가정과 일터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합니다.
- ! **교회에서**: 옥상, 주차장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합니다.
- ! **지역사회에서**: 에너지 협동조합 운영을 확대해 나갑니다.

녹색 서재 (Green library)

‘녹색서재’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문화생활입니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싯딤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라나무를 심고” (사 41:19)

통신을 통해 데이터가 오가는 과정에서도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탄소가 발생합니다. 불필요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대신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어봅시다. 또한 탄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하여 저장하고,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숲을 복원하고 건강하게 가꿉시다.



영상을 끄고 책을 봅시다

- ! **집에서** : 핸드폰과 TV 없이 지내는 시간을 가집시다.
- ! **교회에서** : 도서관을 만들고 책 읽는 모임을 만듭시다.
- ! **지역사회에서** : 공공 도서관을 운영하고 확대해 나갑시다.

숲을 가꿉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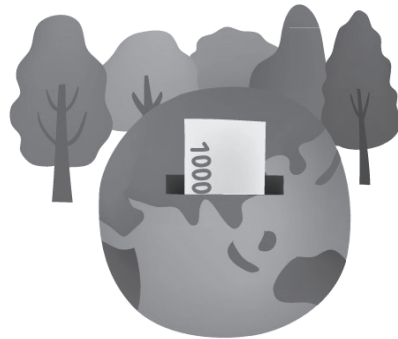
- ! **집에서** : 집과 일터에서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합시다.
- ! **교회에서** : 정원을 만들고 숲을 가꾸는 일에 참여합시다.
- ! **지역사회에서** : 숲을 만들고 가꾸는 일을 확대해 나갑시다.

생명 경제 (Economy of life)

‘생명경제’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 제도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 4:34)**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산업에 투자를 하지 않는 녹색 투자로 탄소 배출이 없는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생명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생태적 가치,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켜 우리 사회의 생태적 전환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녹색 투자에 참여합니다

- ! **집에서** : 탄소배출이 적은 기업에 투자합니다.
- ! **교회에서** : 자산, 기금을 녹색금융을 통해 운용합니다.
- ! **지역사회에서** : 정의로운 전환으로 건강한 일자리를 만듭니다.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 ! **집에서** : 생활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이용합니다.
- ! **교회에서** : 협동조합을 만들어 선교에 활용합니다.
- ! **지역사회에서** :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를 육성합니다.

다음세대의 요청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

한려원 학생/동부광성교회, 혜성컴벤션고등학교 2학년

함께 드리는 기도

생태적 회개를 위한 기도

도영수 목사/총회사회봉사부 부장

맑고 푸른, 하늘과 같으신 하나님,
그런 하늘과 그런 세상을 매일 보며 살아야 할 이 땅이 어둡고 탁해졌고,
사람들은 점점 더 익숙해지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루를 살아갑니다.

조금 더 편하기 위해 마구 태워버린 화석연료로 인해 공기는 심각하게 더러워졌고,
우리의 교만과 탐욕으로 깃뺏은 숲과 자연은 수많은 생명의 터전을
망가트렸고 빼앗았습니다.

더불어 숲을 이루어야 할 사명을 망각한 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만 했던 우리의 무지와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우리의 교만을 속히 꺾어 주십시오.
우리의 욕심을 다스려 주십시오.
세상의 주인이라도 된 듯 착각하는 우리의 무지를 없애주십시오.
이 세상의 수많은 상처와 아픔은 물론,
못생명과 존재가 숨쉬기조차 어려운 도시문명의 삶에서
자연은 모든 것을 품고 쉬어 주며 생명의 기운을 되찾아 줍니다.

이제는 조금 더 불편하고 조금 더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조금 더 단순하고 조금만 더 소박하게 살겠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을 향한 길이며 진정한 생명과 구원의 선택임을 믿습니다.
생명을 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요,
이 땅의 흙과 물을 살리는 것은 우리의 존재와 미래를 살리는 것임을 믿고
생명과 자연의 세상을 열겠습니다.
선택의 순간, 생명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고 기꺼이 그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건 절제운동 지침서

제77회 총회 채택(1992년)

경건과 절제운동 지침서 발간에 즈음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급변에 급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변화도 변화지만 내면적인 변화는 더욱 심각한 국면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집단 이기주의가 판을 치게 되었고, 사회는 문자 그대로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 밝은 내일을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제, 정치, 문화, 심지어 교계까지도 혼란 속에 있습니다. 사치와 방종으로 윤리와 도덕도 사라져 갑니다.

이러한 시대상을 직시하면서, 우리 총회는 ‘경건·절제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교회를 정화하고 사회를 구원하는 구국의 길인 줄 믿고 전개키로 하였습니다. 이 운동은 제71회 총회에서 인준된 총회사회부의 사랑의 현장 갖기 운동과 여전도회전국연합회의 생명운동, 그리고 남선교회전국연합회의 경건과 절제운동에서 촉발되어 제76회 총회에서 총회적인 차원에서 전개키로 결의된 바에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운동을 총회 내는 말할 것도 없고, 전국적으로 전개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이 지침서는 경건과 절제운동에 총회 산하 모든 교회와 교인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총회 경건과 절제 생활운동 추진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여러 차례에 걸친 모임을 갖고 말씀을 중심으로 다듬은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용 자료에는 위에 들은 바와 같이 관련 운동자료들을 수록하여 참고토록 하였습니다. 지침서를 초안하신 총회 경건과 절제 생활운동 추진위원장 유의웅 목사와 장로회신학대학장 맹용길 목사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지침서가 출판되기까지 맡아서 수고하신 총회본부, 사회부의 실무자들과 출판국 직원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침서로 인해 경건·절제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어서 그 목적대로 교회가 새로워

지고 과소비와 방종으로 흐르던 사회풍조를 바로잡게 되어 민족문화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992년 8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김윤식

1. 경건·절제운동의 취지

본 교단 제76회 총회에서는 우리 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측면에서 위기적 상황에 처해 있음을 통감하면서 교회가 먼저 경건화 절제에 앞장서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총회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총회 경건과 절제 생활운동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이미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실천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오늘 그 정리된 내용을 내놓게 되었다.

1. 시대상황

지금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가 갈등과 문제점으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된다. 정치의 장에서, 경제 영역에서, 사회생활의 터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오늘의 상황이 위기적 상황임을 말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그동안 어렵게 이룩한 경제성장과 민주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산업화와 경제성장제일주의에 정신이 팔려 우리 사회의 정신적인 측면에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물질주의, 개인주의로 인하여 정신적 가치를 소홀히 하였으며, 소유하고 소비하는 데에만 관심을 두었던 것도 사실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된 근본적인 원인은 도덕성 부재 혹은 상실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정치윤리, 경제윤리, 사회윤리의 부재가 우리 사회를 오늘날과 같이 혼탁하고 무질서하며 규범이 무너지고 혼란이 심화되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도덕적 타락은 과소비, 사치풍조, 허례허식, 향락, 성적방종, 폭력, 마약, 환경파괴 등을 낳고 있다. 결국 도덕성의 부재가 한국사회를 해체시키고 있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민족은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세계의 역사에서 분명히 찾아볼 수 있다. 만일 우리 민족이 여기에서 새롭게 방향전환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전철을 반복할지도 모르는 처지에 있다.

2. 교회의 책임과 사명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교회도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안겨 주셨다. 그런데 최근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생활을 강조하지 않았으며, 물질적 축복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물질주의를 극복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부패에 편승하는 잘못도 많이 저질렀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한 사회의 도덕적 수준을 유지하고 높이는 책임은 무엇보다도 종교계가 져야 한다는 점에서도 우리 사회의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

이제 교회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다 냉철하게 판단하며, 과거의 구습에서 벗어나 이 민족을 향한 사명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도덕성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올바르게 수립되지 않는 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내가 기록하니 너희도 기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경건에 힘써야 한다. 그것은 형식적인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며, 바른 삶을 살게 하는 영적 능력으로서의 경건이어야 할 것이다. 바른 삶은 인간의 의지나 결단만으로는 부족한 것이다.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만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절제생활에 힘쓰며 경건과 절제의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3. 경건과 절제운동을 전개하자

이제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고자 경건·절제운동을 전교회적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우리의 경건·절제운동은 신앙갱신, 선교운동, 복음의 윤리적 실천, 점진적 사회변혁을 목적으로 하며, 도덕성 회복, 자원 절약, 환경보호를 목표로 하는 다음과 같은 운동이다.

경건·절제운동은

첫째 바르게 살기운동이다.

둘째는 아껴쓰기 운동이다.

셋째는 세 가지 안하기 운동이다.

과소비 안하기

쓰레기 안 버리기

외국농산물 및 유해음식 안 먹기

이와 같은 경건-절제운동은 가정과 지교회와 노회적 차원에서 각각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될 것이다.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온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으로 열매를 맺어 이 민족에게 소망을 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는 계기가 되기만을 바라는 바이다.

II. 경건과 절제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1. 들어가는 말

우리는 경건-절제운동의 구체적인 실천에 앞서 경건과 절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만 오늘날과 같은 패역하고 음란하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경건과 절제를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좋은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런 세대로 이 세대를 바꾸어 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기독교는 사회에 대하여 극단적인 두 가지 태도를 보여 왔고 경건도 서로 다르게 이해하여 왔다. 교회는 세상과 떨어져 은둔하거나 이 세상과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행동하든지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세상과 하나가 되거나 이 세상을 직접 변화시켜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 과격하게 행동하곤 했다. 이러한 교회적 상황 아래서 경건의 문제는 대체로 전자에 속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와 같은 경건의 이해는 경건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데서 오는 오해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의 의미를 바로 알고 우리의 실제생활에 연결시키는 것은 경건-절제운동을 시작하려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 사람, 자연과의 세 가지 관계를 통하여 삼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경건의 의미도 이러한 세 가지 관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는 하

나눔과의 관계, 둘째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셋째는 자연과의 관계이다. 이와 같이 경건은 ‘계시’의 요구를 ‘행위’로 나타내는 종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2. 경건의 성경적 의미

성경에 나타난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사람에 대한 경건,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에서의 경건이라는 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영적인 면과 윤리적인 면이 모두 포함되어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은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숭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말한다. 경건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는 내려야 한다. 경건은 믿음으로 잉태되어 일상생활로 나타난다. 경건은 하나님을 숭양하는 봉사적 삶인 것이다.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과 사랑으로 대치되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갖는 행위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우리는 때로 핍박을 받기도 한다.

경건이 하나님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어질 수 없을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경건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언급되어야 한다. 이웃은 생명의 차원에서 우리와 함께 사는 존재이며, 경건은 이생과 영생의 약속을 얻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생명이란 개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연대적인 문제로서 ‘함께 살자’는 명령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생각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경건은 자연과의 관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활양식도 보여 준다. 경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는다.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므로 그 피조물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좋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손상이 되고 파괴될 때는 기독교인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보기 좋게 보전해야만 한다.

이러한 행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창조주이시며 구속주로 나타나시면서 창조와 구원이 연결되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경건은 통합적 의미를 갖고 있다.

야고보서에는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야고보서의 경건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하는 것이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구체적인 행위, 즉 삶의 양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된 경건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돌보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다른 한편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경건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의 관계에서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우리를 깨끗이 지키도록 명하고 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다.

참된 경건은 기독교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 가운데 존재해 있는 악한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나 돈의 노예가 되는 것, 또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모으려고 함으로써 악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부터 독립하라는 말이다. 그러나 경건은 이러한 소극적인 의미보다는 적극적으로 고난 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도와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참된 경건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경건이 고난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 주어야 하는 것임은 당연하다. 또한 경건은 자연에 미치고 있는 온갖 악영향이나 자연 안에서 나타내는 악 영향을 막아야 하는 것임도 당연하다.

경건은 소극적인 금욕주의와는 다른 것이다. 경건은 오히려 적극적인 삶의 결과로 얻는 것이다. 경건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얻는다. 그러므로 바울은 경건을 연습하도록 권하고 있다. 이러한 경건은 거짓교리를 건전한 교리로부터 분리시키고, 오히려 진리의 지식에 관계되도록 한다.

3. 절제의 성경적 의미

절제는 국어로 ‘알맞게 조절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방종하지 않도록 욕망을 이성으로써 통어()함’이라고 풀이되고 있다. 이러한 풀이는 일반적인 풀이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의미로 절제를 보게 될 때, 비로소 절제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절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정결해야 하는 경건과 함께 하나님께 돌아가 우리의 행위를 알맞게 조절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가 기뻐하시는 행위를 알맞게 조절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가 기뻐하시는 행위를 하도록 통어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으로 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

이성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며 인간의 본성에 연결되어 있어서 통어의 방향과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성은 하나님께 매여 있을 경우에만 바로 쓰여질 수 있다. 그럴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두려워하고 정결할 수 있도록 조절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절제는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나 의지적인 결단의 결과가 아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절제를 못할 때에는 사단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전 7:5). 절제는 성령의 열매이다(갈 5:23).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행하면 절제하게 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고, 첫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도 않게 되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을 수 있게 된다(갈 5:24 이하).

절제는 믿음, 덕, 지식,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등과 연계되면서 나타난다. 이러한 연계에 계층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물론 아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부터 사랑에 이르는 연계 가운데 절제는 중요한 한 단계를 차지하고 있다. 지식에는 절제를 더해야만 그 지식이 제구실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절제와 경건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도와 주고 있는 것이다(벧후 1:4 이하)

어거스틴도 절제를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리고 썩지 않게 보전하는 사랑’이라고 말하였다. 그것은 ‘절제가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는 것’이라는데 근거한 것이다. 절제가 사랑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과 우리의 사랑받는 자가 하나님이라는 점은 어거스틴이 헬라의 절제를 기독교적으로 새롭게 재해석한 것으로서 사랑의 변형적 힘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거스틴은 절제를 사랑 가운데서 일종의 통전성과 부패되지 않음을 약속한 것이며,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 절제가 하는 일은 걱정을 억제하고 누그러뜨리는 것이다. 그 걱정은 우리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즐거워하는 데서부터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다. 즉 이러한 걱정에 사로잡히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 절제이다. 절제는 모든 육체적 기쁨과 인기에 영합하는 것들을 경멸하고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을 뜻한다.

간단히 말하면 절제는 대단히 소극적인 인상을 주지만 실제로 경건과 더불어 의, 인내, 사랑, 지식 등과 같이 하나님과 그가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을 위해 쓰여지는 적극적인 것이다.

4. 경건과 절제의 기독교 윤리학적 의미

가. 경건과 절제의 뿌리 확립

경건과 절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먼저, 그리고 직접 보여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또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계약관계가 왜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삶이 되셔서 인간을 재창조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동시에 그 역사를 통하여 인간에게 경건의 길을 열어 놓으셨으며, 자기를 제한하심으로 인간에게 절제의 본의 친히 보여 주셨다.

경건과 절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셨지만 그가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셨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인간에게 경건의 길을 열러 놓으셨다. 그리고 자기를 제한하심으로 인간에게 절제의 본을 보여 주셨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를 따르는 ‘제자의 도’를 가르치시면서 경건과 절제의 길을 요약하여 보여 주셨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마16:24~25).

그리고 예수님은 경건과 절제의 뿌리를 그가 친히 사람들을 섬기신 그 섬김에서 보여 주셨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10:43~46).

예수님은 이 모든 경건과 절제의 표준을 간단한 표어로 나타내 주셨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

나. 경건과 절제의 생명운동

경건과 절제의 생활화는 곧 생명운동으로 이어진다. 경건과 절제는 단순히 도덕의 생활화가 아니다. 그것은 더 깊은 생명보전과 연결된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잘 나타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요12:24~25).

경건은 절제와 함께 주 그리스도의 말씀과 연결되어 생명운동으로 이어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딤후 6:11~12).

하지만 교만해서는 안 된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해서는 안 되며, 투기와 분쟁과 훼방과 악한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마음이 부패해져 진리를 잃어버려서도 안 된다. 오히려 경건과 절제는 이런 것들을 일깨워 생명으로 가는 길을 찾게 해준다. 우리는 힘을 다하여 경건을 연습하고 절제에 힘을 써 살아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

다. 경건과 절제에 대한 통합신학과 윤리

경건과 절제의 통합신학적 이해는 ‘중심’을 찾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든 것의 중심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경건과 절제를 통하여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새로운 중심을 찾게 된다. 즉 우리의 사고를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생명을 찾는 것이고 함께 사는 것을 희구하는 것이다. 윤리적인 결단을 통한 경건과 절제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의 상징이요 또한 윤리적 비전을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경건과 절제는 우리의 실천적인 삶으로 이어지되, 하나님께 복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연을 보전하는 완성예로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바로 여기서 ‘복종을 위한 자유’의 행함이 요구되고 있다.

4. 맺는말

경건과 절제는 하나님, 인간, 자연과의 삼중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이다. 경건과 절제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 주체는 생명이고 그 생활의 양태는 연대와 결속이며, 그 생활 중심은 하나님이다. 다른 모든 삶은 여기에서 파생되는 것이다. 이것

이 바로 인격의 형성이요, 덕의 생활화요, 바른 삶이다. 역사의식도 경건과 절제의 삶의 연장으로,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을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유기체적 접근에서 형성되어야 한다. 인간은 자연과 함께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통합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것이 생명의 보전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Ⅲ. 경건·절제운동 실천지침

1. 실천내용

경건은 도덕이나 신앙적인 고백 이상의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과의 생생한 결합에서 오는 능력 또는 실재를 뜻한다. 이러한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실천내용과 방법, 지침, 세부실천사항을 참고하여 우리의 삶과 사회를 하나님 뜻 안에서 변화시켜 나아가야 하겠다.

- 실천내용 -

바르게 살기 운동 : 개인/가정, 교회

아껴쓰기 운동 : 물자/시간/자연

세가지 안하기 운동 : 과소비 안하기

쓰레기 안 버리기

외국 농산물 및 유해음식 안 먹기

가. 바르게 살기운동

[목표]

-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한 영적 노력을 한다.
-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한다.
- 교육과 봉사를 통한 민주시민의식 고취 및 밝은 사회 풍토를 조성한다.

<실천사항>

[개인]

- (1) 성수주일을 한다.
- (2) 매일 성경읽기, 기도하기에 힘쓴다.
- (3) 이기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다.
- (4) 정직하기, 인사하기, 양보하기, 칭찬하기를 실천한다.
- (5) 하루 한 번 이웃을 섬기는 선한 일을 한다.
- (6) 질서 지키기, 차례 지키기 등 공중도덕을 지킨다.
- (7) 음란 비디오, 음란 잡지 및 도서 등을 보지 않는다.
- (8) 술, 담배, 화투를 하지 않는다.
- (9) 개인적으로나 직책상 뇌물의 수수를 거부하며 탈세하지 않는다.
- (10) 모든 도덕적이고 정당한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며 질서를 지키는데 앞장선다.
- (11) 직장에서 맡은 일을 부지런히 그리고 성실하게 수행하되 직장의 불법과 반사회적, 비윤리적 행위는 희생이 따르더라도 이를 막으려 애쓴다.
- (12) 주택가나 학교주변의 유해한 환경을 개선하는데 힘쓴다.

[가정]

- (1)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린다.
- (2) 물질보다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신앙으로 자녀를 교육한다.
- (3) 온 가족이 정기적으로 대화의 시간을 마련한다.
- (4) 온 가족이 가사를 분담하고 공동식사를 한다.
- (5) 가족 모두 일찍 귀가하도록 노력한다.
- (6) 부부간에 존대말을 쓴다.
- (7) 청소년에게 본이 되는 예절있는 행동과 말을 한다.
- (8) 아들, 딸을 구별하지 않는다.
- (9) 자녀에게 바른 성교육을 한다.

[교회]

- (1) 불필요한 부동산 소유를 스스로 삼간다
- (2) 지나치게 화려한 예배당 건축을 삼간다
- (3) 회의 및 모임시 호텔 사용을 가급적 금한다.
- (4) 교회 및 노회 행사시 지나친 지출을 금한다(음식, 기념품 등)

- (5) 외부 강사 사례금을 적정화한다.
- (6) 교회에서부터 공정 선거의 본을 보인다.
- (7) 성탄절, 부활절 축하카드 및 청첩장, 부고장 남발을 하지 않는다.
- (8) 교회유관 기관의 무절제한 광고 청탁을 삼간다.
- (9) 승용차는 가급적 소형차를 이용한다.

나. 아껴쓰기운동

[목표]

- 단순한 삶을 생활화한다
- 절약생활을 습관화한다.
- 규모있는 삶을 가꾸어 나간다.

<실천사항>

[물자]

- (1) 물과 전기를 아껴 쓴다.
- (2) 승용차는 혼자 타지 않으며 가까운 거리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다.
- (3)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기를 실천한다.
- (4) 전기를 사용한 후의 전기제품은 사용 후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빼둔다.
- (5) 세면대에 필요한 양의 물만 받아 사용한다.
- (6) 세탁시간을 줄이고 물을 틀면서 세탁하지 않는다.
- (7) 양변기 물 받는 통 속에 주스 병을 넣어 두어 물을 아껴 사용한다.
- (8) 쓸 만한 물건을 유행이 지났다고 버리는 일을 삼간다.
- (9) 쓸모 있는 실용적인 물건을 구입하여 오래 쓰는 습관을 기른다.
- (10) 재생용지 사용을 권장한다.

[시간]

- (1)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 (2) 약속을 함부로 하지 않고 약속시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킨다.
- (3) 시간 계획을 가지고 생활하는 습관을 가진다.

- (4) 업무시간을 철저히 준수하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일한다.
- (5) 출근 시간을 잘 지켜 지각하지 않는다.
- (6) 쓸데없는 잡념이나 공상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 (7) 기회가 있는 대로 독서하기에 힘쓴다.
- (8) 적당한 휴식을 통하여 생활의 여유와 활력을 찾는다.
- (9) 전화사용을 간단히 한다.

[자연(환경)]

- (1) 샴푸, 린스, 세제, 스프레이 등을 최소한 사용한다.
- (2) 이사한 집을 방문할 때 합성세제를 선물하지 않는다.
- (3) 후레온가스(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를 사용하는 에어컨의 사용을 가급적 줄인다.
- (4) 자동차 정비를 철저히 하여 매연을 줄인다.
- (5) 자발적으로 10부제 운행에 동참한다.
- (6) 땅 속에서 썩지 않는 플라스틱 그릇은 사지도 말고 받지도 않는다.
- (7) 양변기에 청정제, 방향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 (8) 이윤만을 추구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의 제품은 사지 않는다.

다. 세 가지 안하기 운동

[목표]

-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한다.
- 자연환경의 심각성을 알게 하고 환경보존을 위한 방법을 터득하게 한다.
- 올바른 식생활 문화를 정착하여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

<실천사항>

[과소비 안하기]

- (1) 결혼절차와 예물은 최소한으로 줄인다.
- (2) 호화결혼식장 사용을 삼가고 교회, 공공기관, 야외 등을 이용한다.
- (3) 호화화환을 주고받지 않는다.
- (4) 수입상품 사용을 억제한다.

- (5) 호화음식점 출입을 삼간다.
- (6) 외식이나 회식을 줄인다.
- (7) 가정의 실매장식을 지나치게 호화롭게 하는 일을 금한다.
- (8) 특별한 목적이 아닌 해외여행을 가급적 삼간다.
- (9) 집은 한 채 이상 갖지 않는다.

[쓰레기 안 버리기]

- (1) 물건을 살 때 집으로 가져오는 물건은 최소한의 포장을 요청하고 선물도 과대포장 하지 않는다.
- (2) 다 쓴 수은 건전지는 수거함에 따로 모아 안전하게 처리한다.(가능한 충전식 건전지를 사용한다.)
- (3) 쓰레기는 타는 것, 안 타는 것,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나누어 버린다.
- (4)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장바구니를 사용한다.
- (5) 일회용 생활용품을 안 쓴다.
- (6) 알루미늄 깡통은 다른 쓰레기와 함께 버리지 말고 납작하게 눌러서 분리 수거될 수 있도록 한다.

[외국 농산물 및 유해음식 안 먹기]

- (1) 제철, 제 땅에 나는 우리 농산물을 먹는다.
- (2) 사먹는 청량음료 대신에 화해, 식혜, 미식가루, 과일즙, 야채즙을 만들어 마신다.
- (3) 방부제가 들어 있는 인스턴트식품 대신 손수 준비한 음식으로 식사한다.
- (4) 백설탕보다는 흑설탕을 사용하며 화학조미료는 먹지 않는다.
- (5) 음료나 차를 판매하는 자동판매기의 사용을 가능한 억제한다.
- (6) 농촌의 생산물을 직거래 방식으로 이용하며 궁극적으로는 한 평의 땅이라도 살릴 수 있는 유기농법 생산 방식에 공동적인 관심과 책임을 퍼 나간다.
- (7) 랩, 스티로폴로 포장된 야채를 되도록 사지 않는다.
- (8) 건강식품이라 하여 아무것이나 먹는 습관을 지양한다.

2. 실천방법

앞과 같은 경건·절제운동의 실천내용을 가정과 교회에서 생활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정해 시행토록 한다.

-실천방법-

가정에서

교회에서

목회자/교회부서 및 자치기관

노회에서

[가정에서]

- (1) 부모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실천한다.
- (2) 자녀들에게 교육하여 실천하게 한다.
- (3) 가족회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의 실천지침을 마련한다.
- (4) 일 중일에 한번 씩 각자 실천한 바를 확인한다.
- (5) 실천사항을 어겼을 시 일정한 책임을 묻는다. (예를 들어 벌금, 용돈삭감, 간식금지, TV 시청 금지하기 등)
- (6) 친척, 이웃에 확대하여 함께 실천하도록 한다.

[교회에서]

[목회자]

- (1) 실천지침서를 전교우 가정에 배포한다.
- (2) 매주일 후보에 게재하고 광고한다.
- (3) 경건과 절제를 주제로 한 설교를 정기적으로 한다.
- (4) 모범사례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표창한다.
- (5) 경건과 절제를 주제로 한 표어를 모집한다.
- (6) 주간 및 월간 실천 사업을 확정하여 실천한다.

[교육부서 및 자치기관]

[교회학교]

- (1)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실천하도록 한다.
- (2) 경건과 절제를 주제로 백일장, 응변대회 등을 개최한다.

[대학, 청년부]

- (1) 세미나, 좌담회 등을 개최한다.
- (2) 지하철역, 광장 등에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 (3) 전단, 자료집 등을 만들어 배포한다.
- (4) 포스터를 제작하여 교회와 지역사회에 부착한다.
- (5) 자료 전시회를 및 연극공연을 한다.
- (6) 폐품 모으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 (7) 지역 내 청소를 실시한다.

[여전도회]

- (1) 가정방문을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 (2) 지역별 반상회를 통하여 운동을 확산시킨다.
- (3) 좋은 사례를 월례회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 (4) 경건과 절제를 위한 기도운동을 전개한다.
- (5) 쓰레기 분리수거를 지역별로 실천한다.
- (6) 바깥 쓰가 장터를 마련한다.

[남선교회]

- (1) 직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한다.
- (2) 어깨 띠를 띠고 가두 홍보에 직접 나선다.
- (3) 표어를 대량 제작하여 지역사회에 부착한다.
- (4) 지역주민들이 잘 보이는 곳에 현수막을 부착한다.
- (5) 부서별 토론회를 개최한다.

[노회에서]

- (1) 노회는 이 운동을 계획, 추진함에 있어서 가능한 실무자를 선임한다.
- (2) 노회는 각 시찰장과 남선교연합회장, 여전도연합회장, 청년연합회장 등을 포함한 '경건과 절제실천위원회'를 두고 노회차원에서 운동을 전개한다.
- (3) 이 위원회는 노회적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4) 이 위원회는 지교회가 하는 경건과 절제 실천운동을 적극 지원한다.
- (5) 이 위원회는 교회지도자와 각 방면에서 활동하는 실무자들을 교육, 훈련한다.
- (6) 이 위원회는 필요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각 교회에 보급한다.
- (7) 이 위원회는 지교회가 실천하는 각종 사업과 프로그램을 평가, 보완한다.
- (8) 이 위원회는 운동에 소요되는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후원회를 조직하여 모금할 수 있다.
- (9) 노회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① 경건과 절제를 위한 노회별 실천대회 개최
 - ② 경건과 절제를 위한 강연회 개최
 - ③ 경건과 절제를 위한 노회원 수련회
 - ④ 아나바나 장터(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장터)
 - ⑤ 모의 결혼식과 결혼예복 발표회
 - ⑥ 우리 농산물 장터
 - ⑦ 농산물 간담회
 - ⑧ 저질문화 추방전시회 및 교육
 - ⑨ 성폭력 및 인신매매 추방대회 및 캠페인

3. 실천지침

경건·절제운동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지침을 개인, 가정, 교회, 직장 등 각 처소에서 실천지침으로 삼아 시행토록 한다.

-실천지침-

기도한다

새벽기도/정오기도/저녁기도

먼저한다

계속한다
확대한다

[기도한다]

경건과 절제운동을 위하여 하루에 세 번 기도한다

새벽기도(오전 5시)

우리 민족의 도덕성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기 위하여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정오기도(오전 12시)

우리나라 경제정의실현을 위하여
절제하며 분수에 맞는 생활을 위하여
직장과 사회의 평화를 위하여

저녁기도(오후10시)

파괴된 환경의 극복을 위하여
교회의 사명과 책임을 위하여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먼저한다.

- (1) 내가 먼저 실천한다.
- (2) 우리 가정에서 먼저 실천한다.
- (3) 우리 직장에서 먼저 실천한다.
- (4) 우리 교회에서 먼저 실천한다.

계속한다

- (1) 매일 계속한다.
- (2) 매주 계속한다.
- (3) 매월 계속한다.
- (4) 매해 계속한다.

확대한다

- (1) 개인에서 개인으로 확대한다.
- (2) 가정에서 가정으로 확대한다.
- (3) 직장에서 직장으로 확대한다.
- (4) 교회에서 교회로 확대한다.
- (5) 지역에서 지역으로 확대한다.

4. 세부실천사항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가정, 직장, 지역사회, 학교, 농촌사회 등 사회의 각 부분에서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사항들의 실례를 들었다. 이러한 세부실천사항을 참고하여 가정이나 직장에서 매주 1가지씩 실천해야 할 목록을 정해서 반드시 지키도록 하되, 스스로 새로운 항목을 발굴하여 지킬 수도 있을 것이다.

- 세부실천사항-

- 가정에서 할 일
- 직장에서 할 일
-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 차원에서 할 일
- 학교에서 할 일
- 농촌사회에서 할 일
- 여가, 문화, 기타 생활 속에서 할 일

[가정에서 할 일]

아침에 일어나서

- (1) 세면하는 동안 물을 계속 틀어 놓지 않고 반드시 받아서 쓴다.
- (2) 세면 시 비눗기를 행군 물은 발 씻는데 쓰거나 모아 담아서 히드렛물로 이용한다.
- (3) 커튼을 열어 쫓혀 전기불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인다.

(4) 시간을 알기 위하여 TV나 라디오를 켜지 않는다.

음식물을 조리할 때

- (1) 버리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음식물 찌꺼기는 반드시 재생 가능한 쓰레기들과 별도로 분리포장해서 버린다.
- (2) 음식물을 데우거나 끓일 때 밀바닥이 넓은 조리 기구를 사용하여 열효율을 높인다.
- (3) 냉장고 문을 여닫는 횟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냉장고에 음식물을 넣을 때에는 반드시 식혀서 넣는다.
- (4) 전기를 사용하는 조리 기구는 사용 후 전원플러그를 반드시 빼둔다.

식사 후 설거지할 때

- (1) 하천을 오염시킬 뿐 아니라 잔류성분을 제거하는데 물이 많이 드는 합성 세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기름기가 없는 그릇은 물로만 행구고 기름기가 있는 그릇은 쌀뜨물이나 밀가루, 중성세제(비누)를 사용한다.
- (2) 남은 음식물을 보관할 때에는 호일이나 랩 대신 그릇을 이용한다.
- (3) 종이행주보다는 천으로 된 행주를 빨아서 쓰도록 한다.
- (4) 음식물 찌꺼기는 따로 포장해서 버리고 폐식용유는 따로 모아 비누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한다.

빨래할 때

- (1) 세탁기 사용보다는 가급적 손빨래를 한다.
- (2) 세탁물을 행구어 낸 물은 따로 받아 허드렛물로 사용한다.
- (3) 빨래는 모아서 하도록 하고 세탁기 사용 시에는 세탁시간(탈수시간 제외)은 10분 이내로 한다.
- (4) 다리미 사용은 다릴 옷을 모아서 한꺼번에 한다.

집안 청소할 때

- (1) 전기청소기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 (2) 걸레를 빨 때에는 허드렛물을 사용한다.
- (3) 쓰던 물건을 함부로 버리지 않으며 재사용 또는 교환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

- (4) 종이 쓰레기는 차곡차곡 묶어서 팔거나 분리 수거될 수 있도록 별도로 내놓는다.
- (5) 빈 병은 환불보증금제도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환불받을 수 없는 빈 병은 따로 모아서 분리수거 될 수 있도록 한다.
- (6) 빈 깡통이나 병뚜껑 등 금속류 쓰레기는 따로 모아서 분리수거될 수 있도록 한다.
- (7) 플라스틱 쓰레기는 따로 모아서 분리 수거될 수 있도록 한다.

시장 볼 때

- (1) 시장바구니를 들고 다녀서 비닐봉지 사용을 줄인다.
- (2) 과대 포장된 상품은 사지 않는다.
- (3) 충동구매를 억제하고 계획을 세워 구매한다.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면 사지 않는다)
- (4) 폴리에틸렌 용기, 비닐 랩, 종이컵 등 1회용품 구입을 가급적 줄인다.
- (5) 인스턴트식품 구입을 가급적 하지 않는다.

기타

- (1) 보일러는 자주 청소하고 너무 낡아서 열손실이 많은 노후보일러는 교체하도록 한다.
- (2) 냉장고 위치는 뒷 벽면으로부터 10cm, 옆 벽면으로부터 30cm 이상을 떼어 가급적 통풍이 잘 되도록 설치한다.
- (3) 겨울철 난방은 최소한으로 하고 옷을 다소 두껍게 입도록 한다.
- (4) 장거리 여행 시에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자가용 승용차 이용시에는 반드시 출발 전에 행로를 미리 파악한다.
- (5) 식사는 가급적 가족이 함께 하도록 한다.
- (6) 주택의 지붕, 천정, 벽에 단열제를 삽입, 부착하고 이때 단열제는 반드시 규격품을 사용한다.
- (7) 등산이나 낚시 등 유원지로 나갈 때 1회용품을 준비하지 않도록 하고, 자기 쓰레기는 다시 가져와서 분리해서 버린다.
- (8) 자녀들에게 자원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실천토록 하며 가족들 상호간에 이를 수시로 권고한다.
- (9) 이웃의 경조사에 꽃다발이나 화환보다는 화분을 주도록 한다.
- (10) 가정이나 목욕탕에서 샤워 시 물을 계속 틀어 놓지 않는다.
- (11) 수세식 변기 수조에 2리터 가량의 물을 넣어서 물 사용량을 줄인다.
- (12) 외출할 때와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수도물이 새고 있지 않은지, 불필요한 전 등이 켜져 있지 않은지, 가전제품 플러그는 빼놓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직장에서 할 일

- (1)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다.
- (2) 직장동료나 이웃과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천한다.
- (3) 사용하지 않는 공간의 전기불은 반드시 끄도록 한다.
- (4) 중식시간 및 퇴근 시 반드시 소등한다.
- (5) 스위치 1개당 형광등 수를 가능한대로 줄인다.
- (6) 실내조명은 햇빛 등 자연조명을 최대한 활용토록 한다.
- (7) 엘리베이터 사용을 줄여 가까운 층은 걸어 다니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운행시간을 줄이도록 한다.
- (8) 냉난방 시 반드시 실내온도계에 따라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겨울철 18. 여름철 26도).
- (9) 여름철 선풍기 사용 시 가급적 미풍으로 사용하고 2시간이상 틀어 놓지 않는다.
(건강에도 해롭고 장시간 사용 시 자체 발열되어 냉방효과가 감소됨)
- (10) 주일날 종교행사 참가 시 자가용 승용차를 타지 않는다.
- (11) 자동차 운전 시 엔진 공회전이나 급정거, 급가속을 하지 않는다.
- (12) 자동차 정비 및 연비(연료사용량당 주행거리)점검을 정기적으로 한다. 전등이 켜져 있지 않은지, 가전제품 플러그는 빼놓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 (13) 사무실 내에서 식사나 차 등을 마실 때 1회용 컵 사용을 억제하고 사무실 근처 자동판매기에서 나오는 1회용 컵은 반드시 별도 수거토록 한다.
- (14) 복사용지, 컴퓨터 용지 등 쓰고 난 종이의 이면지 사용을 의무화한다.
- (15) 사무용 백지로는 가능한 한 재생용지(갱지)를 사용토록 한다.
- (16) 골프장 출입을 삼간다.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할 일

- (1)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격층 운행토록 한다.
- (2) 중앙공급난방식 아파트의 난방온도와 시간을 가급적 낮추고 줄이도록 한다.
- (3) 지역 차원에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천하도록 한다.
- (4) 환할 때 골목 보안등이 켜져 있는 일이 없도록 한다.
- (5)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웃 간에 상호권고, 독려한다.
- (6) 각 가정에서 사용하고 난 폐건전지를 부녀회, 반상회, 노인회 등에서 한데 모아 판매상이나 환경운동 단체로 보낸다.
- (7) 부녀회, 반상회, 노인회, 등에서 이웃과 함께 지역 알뜰시장을 열러 사용하지 않는

의류, 가구류, 완구류, 서적 등을 상호 물물교환하고 폐지나 빈병 등을 한데 모아
서 판다.(고물상이나 자원재생공사를 불러올 수도 있다.)

(8) 잠귀도 물이 세는 수도꼭지나 변기는 즉시 교체, 정비토록 한다.

(폐휴지 수집상이나 자원재생공사에서 정기적으로 수거해가도록 할 수도 있다.)

(9) 사용하고 난 폐건전지는 직장 내에서 한데 모아 판매상이나 환경운동 단체로 보낸다.

(10) 에너지 절약 및 사무용품 소비절약 담당자를 두어 일일 상황점검을 하도록 한다.

학교에서 할 일

(1) 불필요한 전등은 반드시 소등한다.(단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강요되어 학습공간이
어둡지 않도록 한다)

(2) 잠귀도 물이 새는 수도꼭지나 변기는 즉시 교체, 정비토록 한다.

(3) 학용품을 아껴 쓰고 다 쓰기도 전에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4) 종이류 쓰레기를 별도로 모을 수 있도록 분리수거함을 만들도록 한다.

(5) 과자, 빵 봉지나 음료수 팩, 캔 등을 종류별로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
내 분리수거 체제를 갖춘다.

(6) 교내 쓰레기장에서는 함부로 태우거나 혼합처리하지 않으며 반드시 쓰레기를 분리
수거토록 한다.

(7) 난방 시 매연, 가스, 먼지발생을 방지하며, 환기횟수를 줄인다.(연료대체, 난방수단
교체 등이 필요하지만 우선 올바른 점화 방법 등을 철저히 교육할 필요가 있다)

(8) 자원절감 및 재활용에 대한 실천지도를 강화하고 교내에서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
는 장치를 마련해 준다.

(9) 상급생이 쓰던 참고서 등을 후배들이 물려받아 쓸 수 있도록 도서교환행사를 연례
적으로 연다.

농촌사회에서 할 일

(1) 농약과 화학비료를 쓰지 않는 유기농법을 실시한다.

(2) 농약병과 폐비닐은 철저히 수거한다.

(3) 축산폐수는 정화시설을 거쳐 방출시킨다.

(4) 퇴비를 만들어 사용한다.

(5) 살충제와 화학비료의 독성을 주지시킨다.

여가, 문화, 기타 생활 속에서 할 일

- (1) TV 시청은 미리 신문의 프로그램 안내면을 본 후 시청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만 골라서 보고, 보지 않을 때는 반드시 꺼둔다.
- (2) 가정에서의 전기사용은 가능한 대로 전력소비가 많은 시간대를 피해서 한다.
- (3) 실내조명은 햇빛 등 자연조명을 최대한 활용하고 백열등은 형광등으로 교체한다.
- (4)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는 반드시 빼둔다.
- (5) 가전제품 구입 시에는 반드시 전력소비량을 확인한 후 절전형 제품을 구입한다.
- (6) 고장난 가전제품은 가급적 고쳐서 다시 쓴다.

5. 실천 사례

서울시내 모교회의 실천사례이다.

1. 경건·절제운동 표어를 전교인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매월 하나씩 후보에 게시하였다.

*91년 밝은 사회를 위한 실천운동

- 1월- 인사도 내가 먼저 사과도 내가 먼저
- 2월- 웃으면서 고운 말 친절하게 바른 말
- 3월- 티끌 하나 줍고 보니 아름다운 우리 마을
- 4월- 귀중한 내 한 표가 지역발전 좌우한다.
- 5월- 엄마 아빠 웃음소리 도란도란 형제사랑
- 6월- 이웃 향한 작은 사랑 겨레 향한 큰 사랑
- 7월- 양보해서 지킨 질서 웃음으로 돌아온다
- 8월- 살아 있는 환경의식 아름다운 우리 강산
- 9월- 책 속에 있는 보물 독서하면 내것 된다.
- 10월- 이웃 위한 작은 봉사 얻어지는 큰 기쁨
- 11월- 내가 찾는 우리 상표 번영하는 나라살림
- 12월- 아껴쓰는 소비습관 저축하는 밝은 미래

2. 매주일 예배 광고시간마다 후보에 게재된 표어를 전교인이 함께 낭독한다.
3. 교회 주변 주택가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홍보하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1세기 환경선언문

제87회 총회채택(2002년)

전 문

인류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전 지구적인 심각한 환경파괴 위기에 직면하여 있다. 이에 제87차 총회(2002. 9. 9-13., 서울 영락교회)에 참석한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1. 창조 본래의 모습** :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다(창 1 : 31). 육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신 생명의 하나님께서는 제 칠일을 인간뿐 아니라 자연 만물을 위한 안식일로 선포하셨다(창 2 : 2-3).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지구에는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은총에 따른 기쁨과 살롬의 아름다움이 있었다(창 2장, 사 11 : 6-9).
- 2. 21세기의 전지구적인 환경위기** : 그러나 인간의 타락과 죄악으로 인하여 이 지구환경은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게 되었으며, 자연과 인간은 그로 인해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사 24 : 5-6). 인간의 죄와 자연 착취에 의해 토양과 대기와 물의 오염, 오존층 파괴, 기후의 변화, 산성비, 생물종의 감소, 자원의 고갈 등의 문제들이 야기되었는 바, 이에 따라 지구의 생명체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을 1장).
- 3. 환경파괴의 원인들** : 이러한 자연환경을 파괴한 여러 원인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환경파괴의 원인이 되는 것은 죄로 인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단절이다. 또한 인구증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체제, 생명경시를 유발하는 일부의 생명과학, 무제한적인 경제개발과 물질주의, 계층적으로 서열화되어 있는 부정의한 사회구조, 비민주적 정치 체제, 무한경쟁의 세계화, 인간중심주의적 사고방식, 물질과 정신 및 자연과 초자연을 이분법적으로 가른 철학, 그릇된 인간의 영성과 신학 등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된다.

4.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에 고유한 가치를 부여하신 하나님** :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였으며(창 1 : 1), 그것들의 주인 되심을 증언한다(시 24 : 1).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서 고유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인간은 자연의 주인으로 행사하거나 그것을 도 구화하여 무한히 사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창 9 : 8-17).
5. **전 피조물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살림의 구원은 인간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며, 영과 육 모두를 포함하는 구원이고, 개인과 사회뿐 아니라 자연만물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구원이다(골 1 : 20).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으로 인하여, 자연은 종말에 가서 더욱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계 21 : 1).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땅에 성육신하셨던 바(요 1 : 14), 말씀 곧 하늘의 로고스가 물질적인 육신을 입으신 분이다. 그의 이 같은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초월과 내재가, 그리고 정신과 물질이 만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고전 8 : 6), 그를 통해 만물을 소생시키실 것이다. 오늘의 환경위기는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 기인하는 것으로(신 11 : 13-17), 이 시점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창 9 : 1-17, 호 2 : 18),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우리는 창조의 본래적 살림을 되찾아야 한다(요 3 : 16).
6.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 :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의 성령을 통해 다스리시므로, 오늘의 환경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다고 하여도 절망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성령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영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파괴된 자연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된다(시 104 : 30, 율 2 : 21-22). 인간은 성령을 통해 자연과 하나의 유기적 연관성과 공생적 연대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우리는 인간과 자연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서로의 생명력에 상호 의존하여 있는 존재들임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느끼게 된다(엡 4 : 3-6).
7. **자연을 돌보는 인간의 청지기적 사명** : 창조주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자연의 관리를 인간에게 위임하셨다(창 1 : 28). 그러므로 인간은 흙으로 빚어진 피조물임과 동시에, 이 자연을 잘 돌보고 유지할 청지기적 책임을 갖는다(롬 8 : 19). 이러한 청지기직은 개인적이며 제도적인 두 측면으로 구성된다. 먼저 인간 각 개인은 자신의 과소비적 삶의 태도를 지양하고, 검약하고 나누는 삶의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는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공공정책을 지지함과 동시에, 그러한 정책을 만드는 일에 앞장 서야 할 사회적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8. **자연을 성별하는 인간의 제사장적 사명** : 인간은 자연에 대한 제사장적 책임이 있다. 제사장에 의해 식물이나 동물 등의 자연물들이 바쳐질 때, 그것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것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구약의 제사적 전통은 신약의 성례전적 전통으로 이어진다. 성만찬의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와 살로 신자들에게 주어진다(마 26 : 26-28). 이 지상의 만물들과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순간, 그것들은 더욱 온전한 하늘의 것들로 변화하며, 우리는 그것을 통해 성례전적 우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9. **교회의 환경선교에 대한 책임** : 오늘의 환경위기에 직면하여, 주님의 몸 된 교회는 환경선교의 책임을 갖게 된다. 교회는 주께서 주신 구원의 복음을 인간뿐 아니라 온 피조물을 향해 전파할 책임이 있다(사 35 : 1-2).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인간과 우주를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그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또한 그와 같이 우리를 세상을 향해 보내신다(요 20 : 21). 복음을 활력 있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구현하기 위하여, 무기를 만드는 문화에서 농기구를 만드는 문화로, 생명들에 대해 폭력을 가하는 문화에서 온갖 생명을 경외하고 살리는 문화로 변혁시키려는 우리의 선교가 요청되는 때이다(을 3 : 9-10, 사 2 : 4).
10. **환경선교를 위한 교회의 실천** : 교회는 환경선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말씀선포와 교육, 예전과 친교, 사회봉사 각각의 차원에서 실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는 모여서 논의하는 과정을 가져야 하며(을 2 : 15-16), 지교회와 노회, 총회 차원에서 여러 단위로의 조직을 만들어, 온실 효과에 따른 기후 변화, 유전자 조작과 인간복제, 환경호르몬의 폐해, 묘지확대로 인한 국토의 훼손, 무분별한 국토개발에 따른 생태계 파괴, 급속한 세계화의 추진으로 인한 빈부격차의 심화와 국내 농업기반의 파괴, 통일시대를 대비한 북한의 황폐화한 자연환경에 대한 복원 등 21세기의 독특한 환경문제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는 세계교회협의회가 추진하는 범세계적인 JPIC(정의, 평화, 창조의 보전) 운동에의 참여, 각 지역의 환경단체 및 환경감시단의 육성 및 정부의 환경정책에 조언하는 위원회 설치 등의 다양한 실천을 통해, 이땅 위에 생태정의와 생태영성을 고양함으로써 창조보전에 앞장설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경제와 생태정의를 위한 총회 선언문

제94회 총회 채택(2009년)

1. 부름의 소리

2008년 가을 미국 금융가를 중심으로 시작된 금융위기는 전 지구적인 경제위기로 이어졌다. 작년의 금융위기가 갑작스럽게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어 경제시스템의 문제가 시스템 자체의 모순으로부터 쌓여 터져 나온 현상이다.

이번 국제적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위기를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기 전 지구 21세기 전지구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졌다.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빈익빈 부익부의 전 지구적인 경제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부유층의 소득은 오히려 늘어나고 저소득층은 빈민으로 전락되는 현상을 낳고 있다.

이러한 경제 구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성경과 신앙의 원칙과도 위배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심각한 도전과 위협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생태와 경제문제에 대해서 성서적이며 신앙적인 응답을 해야 하며 특히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위탁받는 청지기(창 1:28, 2:15)로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 응답할 책임이 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대하여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지난 2005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열린 제7차 총회에서 아가페 과정 7 (AGAPE Process, Alternative globalization addressing people and earth-민중과 땅에 대한 대안적 세계화 과정)을 채택하여 전 세계적인 경제구조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촉구했다. 세계개혁교회연맹(WARC)도 2004년 가나의 아크라에서 열린 제24차 총회에서 '아크라 신앙고백-경제와 지구의 정의를 위한 계약'(Covenanting for Justice in the Economy and the Earth)을 채택하여 세계 속에서 경제와 생태 정의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실천을 고백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구조와 현상을 바라보며 걱정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세력은 많지 않다. 우리 사회 전반을 살펴봐도 성장과 개발을 중시하는 경제시스템만을 당당한 귀결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 사회단체 등도 생태와 정의를 중시하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지금 여기에서 생태계와 경제구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책임을 안고 있으며 특별히 우리 사회의 가난한 이들의 음성을 듣고 경제와 생태 구조 속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총회는 지난 1998년 IMF 금융위기 상황에서 제83회 총회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교회의 신앙각서’를 채택하고 경제위기 속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0여년 만에 다시 시작된 국제적인 금융위기 속에 총회사회봉사부는 2008년 제93회 총회 이후 몇 차례의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사회포럼과 토론회를 통해 탐욕이 기반이 된 경제구조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시스템이 될 수 없으며 생태적인 위기가 증폭됨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경제구조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4회 총회로 모여 전지구적인 경제구조를 통해 고통받는 이웃과 생태계를 진심으로 염려하며 새로운 지속가능한 생태적인 경제로 향한 길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자 한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으며(눅 16 : 13),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세계의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믿는다(시 24:1). 고통받는 이웃을 위한 섬김과 나눔은 그리스도를 향한 봉사가 될 것이고(마 25:35~36), 우리가 스스로 고통 받는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눅 10:36~37).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서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심으로 응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올바른 신앙적 실천이 될 것이다.

II. 오늘의 세계

지금 우리는 전 세계 1% 부자들의 총 연간 수입이 57% 가난한 자들의 총 연간 수입과 맞먹고 있고 매일 2만 4천 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전 세계 60억 인구 중 7명당 1명인 8억 4천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고통을 겪고 있다. 가난한 나라의 외채는 끊임없이 늘어나 원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여성과 어린이들이 빈곤층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하루에 1달러 이하의 생계비로 살아가야 하는 절대빈곤 속에 있는 세계인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도 2000년대 들어와서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양극화가 진행 중이다. 1990년대 초반 75%에 육박하는 중산층 비율이 2007년에는 57%로 줄었고, 그만큼 빈곤층의 비율이 늘어났다.

전 사회적으로 경제효율 지상주의가 파급되어 능력이 없으면 도태되는 무한경쟁 승자독식의 추세가 확산되면서 실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는 더욱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어 버

렸다. 양극화 현상은 교육문제에 더욱 심각하게 작동하여 저소득층은 교육 기회 자체가 봉쇄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사회복지와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예산과 지원은 감소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이 극대화되고 있다. 농어촌사회는 점차 붕괴되고 있고 부동산과 토지는 투기의 대상이 된지 이미 오래이며 주식과 펀드 등 투자처를 찾아 개인들의 자산이 집중 투자되고 있는 형편이다.

경제위기로 인하여 먼저 저소득층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불안과 자살 폭력과 범죄 등 사회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무한소비와 무한경쟁의 사회문화는 광고와 드라마 영화 등 매스 미디어의 위력을 통해 끊임없이 소비하도록 대중을 부추기고 있다. 이제는 국민들이 모방을 통해 욕망을 실현하도록 끊임없이 설득당하는 소비자로 전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거부하는 저출산의 문제 심각하게 고령화되고 있는 노인문제 다인종 다문화에 열려지지 않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보수성에 대한 문제 등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크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무한 경제성장 정책과 다국적 기업의 이윤추구 극대화 지향은 생태계와 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1989년에는 하루에 한 종의 생물이 사라졌으나 2000년에는 시간당 한 종이 사라지고 있다. 생태계 위기는 기후변화, 생물종의 고갈, 멸종, 토지의 부식, 물의 오염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공동체는 파괴되고 살림살이는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해안지역과 태평양 섬들은 침수될 위협을 받고 있고, 폭풍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고농도의 방사능 방출이 건강과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생명의 구조와 문화적 지식이 경제적 이윤추구를 위해 특허화되고 있다.

한국교회는 70, 80년대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냈으나 성장제일주의 대형교회중심주의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드러나고 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신학의 위기이며 영성의 위기이다. 성공제일주의와 무한경쟁의 세태가 교회 안에서도 통용되는 지금의 상황은 지극히 비성서적이다. 교회는 세상의 불의한 현상을 향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교회 안의 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목회자의 도덕성 실추, 지나친 배타성, 부적절한 교회의 정치참여, 교권주의, 사회봉사와 참여의 부족 등이 그것이다. 10년 전 IMF 사태의 위기를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물질만능주의적인 삶이 지속되고 있는 한국사회 속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크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탐욕과 욕망의 문제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III. 참 회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오니,

우리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섬김과 나눔의 정신으로 세상의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마(5 : 13-16).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의 흐름을 극복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행 1 : 8).

우리는 낮은 자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높고 강한 자의 위치를 유지해 왔습니다 (롬 12 : 16).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출 22 : 21-27).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배려하는 데 부족했습니다 (레 19 : 9-10).

우리는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마 6 : 24).

우리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정의롭게도 공의롭게도 살지 못했습니다 (암 5 : 24).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생명들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돕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 16 : 26).

우리는 착한 행실을 세상에 나타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책임을 감당치 못했습니다 (마 5 : 16)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잘 보전하고 지키는 청지기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창 9 : 7)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합니다 (왕하 22 : 19)

IV.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경시와 죽임의 현실을 넘어 생명 경외와 살림의 문화로 부르신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

1. 경 제

가. 하나님 나라의 대안 경제 체제를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기

준한 삶의 양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 나. 하나님은 승자독식 무한경쟁의 경제에서 상생의 경제로 우리를 부르신다.
- 다. 하나님은 소비와 축적의 경제에서 이웃됨과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향한 경제로 우리를 부르신다.
- 라. 하나님은 이기와 탐욕의 경제를 넘어 자족과 절제의 경제로 우리를 부르신다.
- 마. 하나님은 차별과 배제의 경제를 넘어 참여와 포용의 경제로 우리를 부르신다.

2. 생 태

- 가. 하나님은 인간중심의 생태 관점에서 창조주 중심의 생태관점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 나. 하나님은 파괴와 정복의 생태현실에서 돌봄과 상생의 청지기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 다. 하나님은 낭비의 왜곡된 생태 소비문화에서 미래세대를 염려하는 생태보전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3. 영 성

- 가. 하나님은 물신중심의 영성에서 하나님 중심의 영성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 나. 하나님은 개인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기적인 사유화된 영성에서 공동체적 영성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 다. 하나님은 향락 소비문화 중심의 영성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영성으로 회복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

4. 교회의 사명

- 가.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현실에서 섬김과 나눔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다.
- 나. 하나님은 경제제일주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다.
- 다. 하나님은 생명죽임의 현실에서 생명살림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다.

V. 선언문 작성과정

2008. 11. 21. 사회봉사부 제93-1차 사회문제위원회를 통해 정책문서 발간의 필요성 절감, 박성원 교수, 임성빈 교수, 황필규 목사, 이승열 총무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관련 포럼을 개최하고 집필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기로 함.
2009. 01. 05. 박성원 교수, 황필규 목사, 이승열 총무, 최수철 목사가 소위원회로 모여 포럼 개최 및 집필계획 모임
2009. 01. 30. 2차 소위원회로 모여 구체적인 포럼 계획 논의
2009. 02. 26. ‘경제위기에 대한 교회의 대응’ 포럼 개최(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2009. 03. 27. 제93-2차 사회문제위원회를 통해 포럼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문서 발간 계획을 논의
2009. 05. 12. 2차 포럼 ‘경제위기와 대안모색’ 개최(전주 한일장신대학교)
2009. 05. 19. 3차 포럼 ‘경제위기와 생태적대안’ 개최(광주 호남신학대학교)
2009. 06. 01. 제93-3차 사회문제위원회를 통해 전체 포럼을 평가하고 선언문 집필을 위한 집필위원을 선정하고 제94회 총회 시 배포하기로 함(집필위원 : 박성원, 이승열, 조용훈, 장운재, 강성열, 차정식, 홍인식, 김영균, 실무 : 최수철)
2009. 07. 23. 선언문 집필위원이 대전 유성에 모여 집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초안을 마련함.
2009. 09. 07. 제93-12차 사회봉사부 임원회를 통해 선언문 초안을 확정하고 제94회 총회 시 청원키로 함.

생태정의와 에너지 전환

노회와 지역교회가 함께하는 에너지 전환

*“정의를 뿔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땅을
갈아엮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리주겠다.”*

(호세아서 10장 12절 새번역)

01 경험에 대한 성찰

1. 기후변화의 위기

지금 우리는 기후붕괴 혹은 기후재앙이라 불릴 정도로 심각한 기후변화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UN 산하 국제협약체인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는 1990년부터 2014년까지 5차례에 걸쳐 전 지구적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인간의 산업 활동에 의해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1750년에 비해 2011년에는 40%가까이 증가했으며,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을 시작한 1958년 이후로도 20%가 증가하여 391ppm에 이르게 되었다.

지구 대기의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로 인해 지구의 평균기온은 133년 동안 0.85°C가 상승한 것으로 관측되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온실가스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배출된다면, 21세기말에 지구의 평균기온은 3.7°C가 상승하여 지구 해수면의 높이가 63cm나 상승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450ppm에 이르는 기후변화의 임계점에 도달하면, 지구는 급격한 온도 상승과 이로 인한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해 대부분의 인구 밀집 해안도시

및 경작지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결국 세계적 식량위기와 대규모 기후난민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는 기후전쟁과 같은 대규모의 재난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기후변화가 인류의 화석 에너지 사용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이산화탄소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지 못한다면 기후변화로 인한 암울한 미래는 예측이 아닌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

2. 핵발전의 위험성

2016년 경주와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연이은 두 번의 큰 지진으로 발생한 피해보다 사람들을 더욱 두려움에 떨게 한 것은 지진이 발생한 인근 지역에 대규모의 핵발전소 단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포항과 경주 인근에는 월성, 신월성 핵발전소 6기, 고리, 신고리 핵발전소 10기와 함께 핵폐기물 처리장까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의 핵발전 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참사를 일으켰다. 핵발전소는 구조적으로 지진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으로 인한 핵발전소의 사고 가능성이 급격하게 제기되었다.

1878년, 고리 핵발전소가 운전을 시작한 이래로 2018년 현지 국내에는 총24개의 핵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논란이 되었던 신고리 5,6호기 등 신규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국내의 모든 핵발전소가 가동을 멈추게 되는 시점은 2080년 이후가 될 것이다.



국내의 핵발전소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핵발전소 밀집도는 세계최고이다.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 동부해안의 핵발전소는 이미 26기가 작동중이고, 건설 중이거나 건설계획 중인 핵발전소는 총 23기에 달한다. 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고, 쌓이는 핵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는 핵발전은 조속히 중단되어야 한다. 핵 에너지는 화석 에너지의 대안이 아니라 결코 열어서는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일 뿐이다.

02 상황에 대한 분석

1. 에너지 생산

에너지관리공단에 의하면 2015년 국내 에너지 생산에서 석탄은 29.7%, 석유는 38.1%, 천연가스는 15.2%로 화석 에너지의 비중이 73%에 달한다. 핵발전이 생산하는 에너지 역시 12.1%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폐기물 소각을 포함한 고형연료와 태양광, 풍력, 조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4.5%에 지나지 않는다.

현지 국내 에너지 생산의 기초가 되는 에너지원의 90%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항상 에너지 유동성, 에너지 안보 상황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때문에 현재의 화석 에너지와 핵에너지에 편중된 에너지 생산을 줄여나가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2. 에너지 소비

우리나라는 전 세계 에너지 사용량에 있어 상위 10위 안에 들어가는 주요 에너지 소비 국가이다. 부분별 최종 에너지 사용량에서 산업 부문과 가정 부문에서 에너지의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소비 분포에서 서울과 경기도가 국내 총 에너지 소비의 70%를 차지하여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지역적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의 문제 역시 에너지 소비의 증가와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 때문에 에너지 생산에 있어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산업과 가정의 에너지 소비를 줄여 총 생산량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03. 교회의 응답

1. 성서적 응답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 주겠다.”(호세아서 10장 12절)

호세아서 10장 12절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상황에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에 대한 깨달음을 준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했던 시기이다.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주변국 앗시리아는 혼란에 빠진 북이스라엘에 조공을 요구하고 영토를 빼앗는 등 국외의 상황도 위기가 고조되던 시기이다. 이때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위기를 벗어날 방법은 “묵은 땅을 갈아엎고 정의를 심는 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성서의 정의는 하나님의 처음 약속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살림의 세계가 파괴된 현실을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때문에 우리는 먼저 화석 에너지, 핵 에너지에 의존해서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

화석 에너지와 핵 에너지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햇빛과 바람, 물, 땅으로부터 얻는 재생가능 에너지의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에너지로 인한 불평등을 바로잡는 성서적 정의를 이루는 일이다. 또한 우리의 과도한 화석에너지 소비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문제들 속에서 에너지 소비에 대한 성찰을 통해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도 정의가 필요함을 기억해야 한다.

이처럼 에너지 전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따르는 일이며, 이 시대에 합당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다. 오늘 우리에게 성서는 분명히 이야기한다.

이제 돌이켜서 기후변화의 땅에 에너지 정의를 심으라고 말이다.

2. 에너지 절전소

대한예수교장로회 수원성교회는 2014년에 교회절전소 운동을 진행했다. 절전소 운동은 에너지 절감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이루려는 소비 관리 측면의 에너지 운동이다. 기존 발전소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이지만, 절전소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효과를 얻는 것이다.

먼저 수원성교회는 에너지진단을 통한 에너지 소비 다중분석을 진행하고, 교회전력 및 에너지 사용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후 각 참여가정이 전년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10% 줄이기로 서약하고 절전소 운동에 참여했다. 구역장, 전체 교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실천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294가정이 전기절약 실천서약에 참여해서 이중 실제로 201가정이 실천에 참여했는데, 이들 가운데 절반정도인 100가정이 서약한 대로 10% 이상의 에너지 절약 성과를 냈다. 수원성교회는 절전소 운동을 통해 교회의 에너지 전환 운동의 모범적인 모델로써 향후 교회 에너지 전환 운동의 모범적인 모델로써 향후 교회 에너지 전환 운동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3. 햇빛발전소

충북 청주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강서교회는 2014년 100kw/h 규모의 햇빛발전소를 완공했다. 햇빛발전소의 총 공사비는 3억6,000여만원의 비용이 들었고, 발전을 통해 생산하는 수익은 연간 약 5,000만원이다. 강서교회는 이 수익금 전액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고 있다.

강서교회는 햇빛발전소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세계 보전을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 사랑을 나누는 선교정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기장 햇빛발전 협동조합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산하 생태공동체운동본부의 특별선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교단 차원의 에너지전환 사업이다. 기장 햇빛발전 협동조합은 2014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한신대학교 수유동 캠퍼스 도서관 옥상에 50kw/h 규모의 우리 동네 햇빛발전소를 설치했다. 이후 2016년 3월 충남 예산에 위치한 예동교회 옥상에 10kw/h 규모의 기장햇빛발전 1호기를 설치하였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환경선교위원회와 기감 서울연회 환경위원회는 2018년 4월 2일, 감리교 햇빛발전 협동조합을 창립했다. 기감 햇빛발전협동조합은 핵 발전과 기후변화를 막고 미세먼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햇빛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려는 교단차원의 대표적인 에너지 전환 운동 사례이다.

04 참고사례

1. 독일의 에너지 전환

지금 세계는 앞을 다투어 에너지 전환의 변화에 동참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독일은 전 세계 에너지 전환의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2017년 독일의 총 에너지 생산량 중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36.1%에 달한다. 이는 1986년에 발생했던 체르노빌 핵사고의 피해와 충격을 토대로 탈핵운동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및 에너지법 재정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결과이다.

1988년 사민당이 정권교체를 이루고 2021년까지 핵에너지를 전면 폐지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2000년에는 재생가능에너지 법안을 통과시켜 독일 내 전기관련 회사와 기업들은 반드시 재생가능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하도록 했으며, 이를 지원하는 발전차액제도를 법제화했다.

독일의 에너지 전환을 모델로 유럽에서도 각 국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 진행되고 있다. 유럽의 에너지전환 운동과 정책의 목표는 첫 번째로 핵 에너지의 위험성에서 탈출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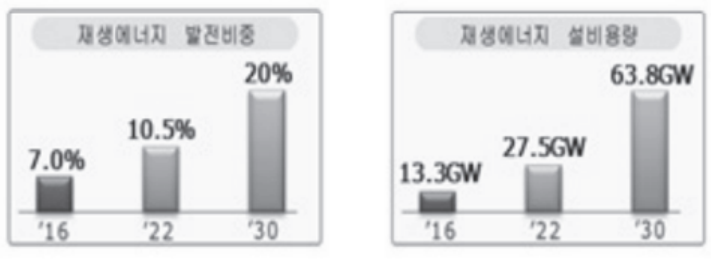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유럽의 탈핵운동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두 번째로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를 방지 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을 정책화하는 것이다.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하는 생태학적 위기는 유럽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이슈이다.

마지막으로 화석연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에너지 공급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안전한 에너지기술에 대한 지향은 유럽이라는 지역사회의 이익을 창출하고 지구를 회복하는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다.

2. 국내 에너지 전환의 현황

2017년 12월 20일,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한국 에너지 정책의 큰 변화를 의미한다. 정부가 발표한 이행계획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20%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재생에너지의 보급은 급속히 늘고 에너지 신산업은 크게 성장할 전망이다. 이행계획에 따르면, 에너지 관련 신규설비 95%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재생가능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산업자원부 2017년)

이 정책의 표어는 “모두가 참여하고 누리는 에너지 전환 ‘RE3020’”이다. 그동안 에너지 생산의 중심에 있었던 석탄과 화력, 원자력 중심으로 하는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체계를 전환하려는 바람직한 방향의 정책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여전히 대규모 사업의 비중이 높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지원책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3. 서울시의 에너지전환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은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이다. ‘원전하나줄이기’는 핵발전소 1개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량인 200만 TOE의 에너지를 시민과 함께 절약하고,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미래세대를 위한 에너지 정책이다.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에너지 소비형태에 대한 반성과 성찰에서 시작했다.

서울시의 에너지 소비는 계속해서 늘어나지만 생산은 늘지 않아 에너지 자립률이 최하위로 에너지 불평등의 수혜를 받는 것이 지금 서울시의 현실이다. 때문에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는 서울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 그리고 전 지구까지 고려하며, 다른 지역과 상생하고 지구 환경을 보전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생태정의와 GMO

노회와 지역교회가 함께 차리는 생명의 밥상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자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 주겠다.”

(호세아서 10장 12절 새번역)

경험에 대한 성찰

1. 차코의 눈물

몇 해 전 국내 방송사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차코의 눈물’이 시민들의 화제가 되었다. ‘차코의 눈물’은 남미 아르헨티나 차코지역의 어린이들과 농민들이 얼굴과 몸 곳곳에 알 수 없는 검은 반점과 털이 생겨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방송으로 보여주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방송은 차코지역 주민들 대부분이 뇌성마비, 종양 등 이상 질병을 겪고 있고, 신생아의 30%가 기형으로 태어나며, 가축들이 집단으로 폐사하는 참혹한 현실을 보여주었다.

방송은 이러한 재난의 원인으로 GMO 콩 재배에 사용된 다국적기업의 맹독성 농약을 지목했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3대 GMO 콩 수출국이고, 차코지역은 아르헨티나 콩 수출의 중심지였던 것이다.

이 방송을 통해 국내에서도 GMO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고조되었다.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란 ‘유전자 조작(변형) 생명체’를 뜻한다.

전통적인 농업에서는 자연적인 교잡을 활용해서 병해충에 강하거나 생산성이 높은 종을 찾아내는 육종기술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유전자조작 기술이 발전하면서 한 생물의 유전자에 다른 생물의 유전자를 삽입해서 단기간에 새로운 형질이나 유전자를 갖는 종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과학자들은 유전자 조작기술을 사용하여 토마토가 물러지지 않도록 찬 바다에서 살아가는 넙치의 유전자를 결합시킨 유전자조작 토마토, 살충성분을 스스로 만드는 옥수수, 제초제를 뿌려도 죽지 않는 콩 등을 개발하였고, 다국적 기업은 이를 상품화하여 판매를 해왔다.

이러한 유전자조작 기술로 만들어낸 생명체와 이를 통해 제조, 가공된 식품을 통칭해서 GMO라고 하며, 생식과 번식이 가능한 살아있는 상태의 유전자조작 생명체를 LMO(Living Modified Organisms)라고 한다.

2. GMO의 위험성

GMO가 인류역사에 등장한 것은 불과 20여 년 전이다. 때문에 GMO는 식품으로써의 안전성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많은 실험과 연구는 지속적인 GMO의 섭취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밝히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2년 프랑스의 셀라리니 박사는 쥐에 대한 2년간의 실험에서 GMO를 지속적으로 섭취한 쥐들이 GMO를 섭취하지 않은 쥐보다 간, 신장, 유선종양, 뇌하수체 이상과 더 높은 사망률을 나타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GMO는 생태계의 생물종의 다양성을 해침과 동시에 주변 생태계에 GMO 유전자를 전파시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생태계의 유전자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전 세계 콩 재배 면적의 70%가 단일한 품종의 GMO 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일 이 품종에 특정한 질병이 생길 경우 세계 콩 생산은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또한 GMO는 GMO를 생산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의 주장과는 다르게 맹독성 농약사용을 확대시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라운드업’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되는 몬산토사의 제초제 내성 GMO 콩은 ‘라운드업 레디’라는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를 다량으로 사용하게 된다. 글리포세이트는 WHO(세계보건기구)가 발암물질로 지정한 맹독성 화학물질이다.

또한 GMO는 생산기업의 지적재산권 주장으로 농부가 종자를 재종해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GMO 종자를 재배한 농민들은 해마다 GMO 종자회사의 종자와 특정 제초제를 구매해야 한다. 그러므로 농민들은 전통적인 농업을 포기하고 종자회사에 예속되게 되고, 우리의 전통적인 농촌은 다국적기업의 이익을 위해 해체되고 만다.

결국 GMO는 다국적기업의 수익창출만을 위해 사회적 불평등과 생태적 부정의를 양산하는 도구인 것이다.

상황에 대한 분석

1. GMO에 점령당한 밥상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 GMO는 이미 전 세계 농업과 식품산업을 지배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4년에 전 세계 농지의 13%에 해당하는 1억 8,150만 헥타르가 GMO 재배에 사용되고 있고, 그 비중은 더욱 확대되는 추세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콩의 79%, 옥수수의 32%, 유채(카놀라)의 24%, 면화의 70%가 GMO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표적인 GMO 재배국은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 인도 등으로 28개 국가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수입국은 39개 국가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현재 식용 GMO 수입 세계 1위 국가이고, 미국의 뒤를 이은 GMO 소비 2위의 국가이다. 1인당 연간 GMO 콩은 20Kg을, GMO 옥수수는 22Kg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엄청난 양의 GMO를 소비하면서도 GMO를 먹고 있는 것을 잘 모르는 이유는 주로 가공된 형태의 GMO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가공식품 원재료의 70%는 수입산인데, 그 가운데 80%가 GMO가 사용된 원재료이다.

이 GMO를 원료로 콩기름, 옥수수기름, 면실유, 카놀라유, 아스파탐, 올리고당, 액상과당 등이 만들어지고, 이들은 간장, 된장, 고추장, 물엿, 마아가린, 커피크림, 땅콩버터, 음료수, 과일주스, 통조림, 샐러드드레싱, 과자, 아이스크림, 주류 등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식용 GMO보다 4배나 더 소비되는 사료용 GMO는 국내 사육중인 대부분의 소, 돼지, 닭, 염소 등의 가축배합사료로 사용되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축산물과 축산가공품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2. GMO원료 완전표시제

현재 식품위생법에서는 GMO를 가공했을 때 유전자조작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으면 GMO 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때문에 지금 우리는 GMO 원료가 사용된 가공식품을 먹고 있으면서도 GMO를 먹고 있다는 정보를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GMO가 원료로 사용된 모든 식품에 유전자조작식품이 사용되었다는 표기를 하도록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GMO를 먹어야만 한다.

식품에 GMO 원료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하지만 다국적기업과 식품산업계의 이익을 위해 식품의 모든 원료에 사용된 GMO를 표시하는 법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식품 소비자가 GMO로부터 안전한 식품을 직접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교회의 응답

1. 성서가 전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시며 ‘보기에 좋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이미 온전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하지만 GMO는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좋지 못한 것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부정하는 것에서 출발을 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셨다’고 이야기한다. 기독교 신앙은 창조세계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길로 각각의 고유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고백한다.

하지만 실험실에서 인간의 유전자조작 기술로 만들어낸 GMO는 하나님의 창조보다 인간의 기술이 더 우위에 있다고 여기며, 각각의 생명에 부여된 고유한 목적을 부정하고 있다.

2. 생명의 밥상 차리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셨던 성만찬의 재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고백해왔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거룩한 생명의 밥상’으로 이해하고 성만찬의 전통을 이어온 것이다.

GMO는 우리 일상의 밥상을 불의한 것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교회의 거룩한 성만찬조차 거짓된 것으로 만든다. 성만찬에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에 인간의 탐욕의 산물인 GMO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교회의 공동 식사와 신앙인 가정의 식탁에서도 창조세계의 온전함을 부정하는 GMO가 사용되지 않는 ‘GMO 없는 생명의 밥상’을 차릴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편에서 ‘탐욕을 부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노래한다. GMO는 욕심으로 만들어진 열매다. GMO를 먹고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GMO 없는 생명의 밥상을 차리고 귀한 음식을 감사히 먹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일이다.

성서는 나무의 열매와 들판의 곡식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한다. 이사야서 65장은 자신의 포도나무 열매를 자신이 따먹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GMO가 아니어도 이미 풍성한 열매와 곡식을, 가축들을 우리에게 베풀어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생명의 밥상을 거역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생명의 밥상은 우리의 영혼과 몸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이 땅의 모든 생명을 평화로 이끈다.

교회는 GMO 없는 생명의 밥상을 통해 다음 세대에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전할 수 있다. 다음 세대가 GMO 없는 생명의 밥상을 차리려는 노력을 바라보며 바른 신앙 안에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성장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3. 농촌공동체, 생명살림 운동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고 이야기한다. 이에 반해 GMO는 거대한 다국적 기업이 종자산업과 화학산업을 통해 농업을 지배하여 불의

의 체제를 만드는 ‘악에 속한 생각’으로 비롯되었다.

때문에 GMO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씨앗으로 건강한 생명을 길러내는 농촌공동체를 회복하고, GMO를 통해 불의의 체제를 확장하려는 세력에 맞서 평화로운 생명살림 운동을 펼쳐나가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는 GMO 작물개발단을 만들어 GMO 작물을 연구하였으나, 교회와 기독교단체의 GMO 반대운동을 비롯한 전국적인 반GMO 운동으로 정부 차원의 GMO 재배를 백지화할 수 있었다.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이룰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사례

1. 해외의 GMO 표시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오래전부터 GMO로부터 자국 시민들의 건강과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GMO 수입과 재배를 금지하고 수입 가공식품에 대한 원료기반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에서는 2015년 의회의 결의를 통해 GMO를 생산, 수입, 판매할 시에는 테러에 준하는 형벌로 처벌한다는 강력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GMO 재배국이자 수출국인 미국은 대외적으로는 GMO에 대한 의무표시제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도, 모든 가공식품에 GMO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제도적으로, 버몬트 주를 비롯해서 20여 개의 주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GMO에 대한 의무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GMO 재배, 수출국인 캐나다에서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NON-GMO 표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 생활협동조합

일반적인 식품매장에서 소비자들이 GMO에 대한 정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오래전부터 NON-GMO 친환경 식품을 판매해온 생활협동조합을 통해 생명의 밥상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우리 교단에서는 총회 차원에서 2015년에 창립된 온생명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생명의 파수꾼을 자임하고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식량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교단 생협인 온생명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소개하고 아울러 가입과 이용을 알림으로 GMO 없는 생명밥상 운동에 동참할 수 있다.

온생명소비자생활협동조합 www.onlifecoop.or.kr

온생명장터 www.onlifecoop.or.kr

3. 생명살림 운동

‘탈GMO 생명살림 그리스도인 연대’라는 단체에서는 탈 GMO 연합예배와 신학세미나 등을 통해 시민사회와 한국교회에 GMO의 진실을 알리고 GMO 관련 법개정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탈GMO 생명살림 그리스도인 연대’는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정농회, 한국기독교생명농업포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사회봉사부, 온생명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등의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생협단체들과 환경단체, 농민단체, 시민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GMO 반대 전국행동이 조직되어 완전표시제 시행과 함께 농업과 농촌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들어나가고, 학교급식에 GMO 사용을 반대하는 운동을 다각도로 펼쳐나가고 있다.

4. 생명밥상 운동

‘교회를 푸르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온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한국교회환경연구소에서는 오래전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나누는 생명밥상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아래는 생명밥상을 위한 12개의 수칙이다.

하나, 국내산, 유기농산물을 애용한다.

둘, 제철음식을 먹는다.

셋, 가공식품을 삼간다.

넷, 외식을 최대한 줄인다.

다섯, 계획 구매하여 오래 보관하지 않는다.

여섯, 단순하게 조리하여 먹을 만큼 담아낸다.
일곱, 반찬수를 줄여 간소한 상을 차린다.
여덟, 육식보다 곡식과 채소를 즐긴다.
아홉, 생명주심에 감사하며, 천천히 먹는다.
열, 신음하는 이웃을 생각하며 소식하다.
열하나, 남기지 않고 그릇을 깨끗이 비운다.
열둘, 최소한으로 배출된 음식쓰레기는 재활용한다.

생태정의와 미세먼저

노회와 지역교회가 함께 만드는 푸른하늘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목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 주겠다.*

-호세아서 10장 12절 새번역

1. 런던 대스모그 사건

1952년 12월 4일 오후. 런던은 여느 때와 같이 바람이 잦아들고 짙은 안개가 깔리기 시작했다. 으스스한 추위에 사람들은 평소보다 일찍 디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 석탄을 태우기 시작했다. 그날 밤은 유독 사람들의 바튼 기침소리가 자주 있었다. 그날부터 5일간, 극심한 대기정체로 인해 안개와 매연이 뒤섞인 검뿌연 스모그가 런던을 뒤덮어 거리는 한낮에도 가로등을 켜야 했고, 실내도 매캐한 석탄 타는 냄새가 빠지지 않았다.

노약자들은 눈과 코, 목의 통증을 가라앉게 하려고 병원을 찾아갔지만, 이미 병원은 환자들로 가득 찼고 노약자들은 극심한 고통 중에 죽음을 맞이 시작했다. 이 ‘런던 대 스모그 Great London

Smog’ 사건이 일어난 12월 한 달 동안 4,000명의 사람들이 기관지와 호흡기 질환, 폐렴으로 사망했고, 그해 겨울이 지나자 모두 12,000여 명의 사람들이 스모그의 직간접적인 이유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01 경험에 대한 성찰

2. 소리없는 살인자

런던 대 스모그 사건을 통해 돌아볼 수 있듯이 대기오염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는 또 다른 이름처럼 엄청난 위험성과 독성을 가지고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 2010년에 세계보건 기구 WHO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혈관 질환, 피부 질환 등의 연간 사망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연간 사망자 125만 명보다 5배나 많은 700만 명에 이른다는 보고서로 대기오염에 대해 경고를 한 바가 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부유물질을 뜻하는 미세먼지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물질로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동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일으켜 식량 생산을 감소시키고, 건축구 조물을 손상시키는 등의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아울러 미세먼지는 지구 생태계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의 환경 적응력을 떨어뜨려 생물다양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생태적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과 한국 간의 대기오염의 미세먼지를 둘러싼 논쟁과 같이 지역과 국가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사회적 문제의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02 상황에 대한 분석

1.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

미세먼지로 가득한 뿌연 하늘이 더욱 짙어지는 것 같은 체감 현실과는 다르게 실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점점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2013년 이후로는 클린디젤 정책 등미세먼지 배출 규제 완화로 미세먼지의 농도가 더 낮아지지 않고 정체되고 있는 반면에 환경관련 주의보의 기준 강화로 미세 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 주의보의 발령은 늘어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미세먼지의 1차 배출원이 제조업체 사업장 40%, 선박과 건설장비 16%, 발전소 14%, 자동차 12%, 생활 오염원 10%, 냉난방 연소 5%인 것으로 조

사되었다. 1차로 배출된 미세먼지는 2차 미세먼지를 생성하게 되는데, 1,2차 미세먼지의 대부분은 유연탄과 벙커C유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부분의 미세먼지는 지구의 자원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우리의 삶,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우리의 에너지 시스템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2. 기후 변화와 미세먼지

최근 밝혀진 바에 의하면 기후변화로 인한 극지방의 빙하 감소로 극지방과 유라시아 대륙의 온도차가 감소하여 한반도 상공의 풍속이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한 한반도의 대기정체의 증가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일정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실제 관측 결과 한반도를 지나가는 풍속의 세기와 미세먼지의 농도는 정확하게 반비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폭염의 증가와 평균 기온 상승은 고농도의 오존 발생 등 미세먼지의 영향을 악화시키고 있다. 만일 에너지 전환, 탄소세 도입, 녹지면적 확대 등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잘 이루어져 ‘지속가능한 순환사회의 시나리오’가 실현된다면 미세먼지는 감소할 것이지만, 지금 이대로의 성장중심의 경제가 지속되어 화석 연료 사용이 줄어들지 않아 ‘기후재난 시나리오’가 진행된다면 빈번한 기후재난 발생과 미세먼지 농도 증가로 인한 환경위기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

03 성서의 응답

1.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은 거대한 도시와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바벨탑을 쌓기 위해 사람들이 벽돌을 굽고 역청을 사용했다고 이야기를 한다. 역청은 타르와 같이 자연 상태로 발견되는 탄화수소화합물, 즉 정제되지 않은 석유나 석탄이다. 창세기 11장은 화석에 너지가 세계 역사에 등장한 첫 번째 사건이다.

당시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을 벽돌을 굽기 위해 주변의 나무들을 베어와 불을 지폈을

것이다. 공사 현장은 나무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짙은 연기가 가득했을 것이고, 역청에서 비롯된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을 것이다. 일을 하던 사람들은 기침을 하며 점점 쇠약해졌을 것이다. 바로 이 연기와 냄새가 지금 기준으로 미세먼지 중에서도 독성이 강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s

이다. 창세기 11장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바벨탑을 쌓으려했던 인간의 욕망은 결국 하나님의 개입으로 실패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2. 에돔의 심판

이사야서 34장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 내리는 저주와 징벌이 묘사되어 있다. 특히 9절은 하나님의 에돔을 향한 심판으로 “에돔의 강들이 역청으로 변하고, 흙이 유황으로 변하고, 온 땅이 역청처럼 타오를 것이다.”

새번역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은 역청이 타오르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 불이 밤낮으로 꺼지지 않고 타서, 그 연기가 끊임없이 치솟으며, 에돔은 영원토록 황폐 하여, 영원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새번역

역청의 불길이 만들어낸 연기가 에돔을 영원토록 황폐하게 할 것이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은 역청과 마찬가지로 화석연료를 태워서 미세먼지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성서는 미세먼지가 결국 풍요로운 땅을 황폐하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풍요를 누릴 수 없다.

04 영성적 실천 방안

1. 미세먼지 약자 돌보기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의 상황이 무척 답답하게만 느껴지지만 세계로 눈을 돌리면 우리

나라는 그나마 미세먼지의 피해가 덜한 편에 속한다. 국가별 인구 10만 명 당 초미세먼지(PM-2.5)로 인한 조기사망률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핀란드는 조기 사망 자가 7명으로 가장 낮은 국가였고, 우리나라는 18명으로 27번 째로 조기 사망률이 낮은 국가였다. 반면 가장 높은 국가는 석유 수출국 나이지리아로 조기사망자가 147명에 달했고, 차드, 니제르, 예멘 등의 저개발 국가들 역시 조기사망자가 100명이 넘었다. 북한 역시 81명으로 기니와 함께 조기사망률이 26번째로 높은 국가에 속했다.

선진국들은 미세먼지 관리와 보건의로 체계를 잘 갖추어 조기사망률이 낮은 반면에, 관련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못한 저개발 국가들은 선진국보다 10배 이상의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 미세먼지 취약 국가와 미세먼지 약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돌봄과 지원과 필요하다.

2. 미세먼지의 근본적 대책

우리는 미세먼지의 위험성이나 이로 인한 사망률에 대한 현실을 알게 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미세먼지 마스크와 공기청정기가 필수품이 되었다.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계절이 되면 고가의 미세먼지 마스크와 공기청정기가 끊임없이 팔려나간다. 하지만 앞선 미세먼지 배출원에서 살펴보았듯이 미세먼지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를 만드는 제조업 생산 과정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한다. 미세먼지를 막고자 미세먼지를 더 발생시키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 특히 화석연료, 석유화학제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산업구조와 산업문명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산업구조와 생태문명을 만들어가려는 고민과 모색이 필요하다. 미세먼지라는 재앙을 통해 우리는 지구의 방식에 따르는 생태적인 삶을 찾아가는 출애굽의 여정을 걷게 되는 것이다. 이에 교회가 창조세계의 온전성 Integrity Of Creation 을 회복하는 삶을 체험하는 처소가 되어야 한다.

05 변화에 대한 소망

1. 외국의 미세먼지 감축 노력

세계 각국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르웨이는 2025년 이후 배출가스가 없는 자동 차만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법을 제정했고, 영국 런던은 올해 부터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제도를 시행해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했고, 영국 전역에서는 전체 2020년까지 모든 택시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2040년부터는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차량은 운행을 금지하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고 있고, 뉴욕시는 2050년까지 빌딩에서 배출되는 난방 가스를 80% 감축하는 목표를 세우고, 빌딩에 그린루프와 태양광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중국은 버스를 전기자동차로 교체 해나가고 있고, 강력한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전 세계 햇빛발전소 설치량의 50%를 넘는 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세우고 있다.

2. 숲을 가꾸는 교회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대책으로 숲을 조성하는 일이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국무총리가 겨울철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몽골 울란바타르시를 방문하여 ‘도시숲 조성’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을 몽골 총리와 합의했다. 숲은 미세먼지의 농도를 낮추며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물을 가두고 정화하는, 지속가능하며 안전하고 경제적인 공기청정기이자 정수기인 것이다. 한국교회가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 해외 미세먼지 피해 국가에 숲을 가꾸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몽골 아르갈란트 숲에는 예장 총회 사회봉사부의 후원과 한국교회의 참여로 마련된 ‘은총의 숲’이 조성되어 28,000여 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다. 은총의 숲은 몽골의 미세먼지 발생을 막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교회의 가능한 공간마다에 나무를 심어 정원을 가꾸고, 실내에도 공기청정기 대신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식물을 길러 교회를 작은 숲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06 참고 사례

1. 교회 온실가스 감축 매뉴얼

우리나라의 비산업부문의 건물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교회이다. 비산업부문의 건물로는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교회의 에너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난방연소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과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가 하고 있다. 창조세계를 미세먼지로부터 지키고 돌보아야 할 교회가 미세먼지의 발생원이 되어버린 것이다.

환경부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는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할 동의 활성화를 위해 각 부문별 맞춤형 온실가스 진단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독교환경운동연대의 협력과 자문을 받아 ‘교회 온실가스 감축 매뉴얼’을 제작하였다. 교회에서는 교회 온실가스 감축 매뉴얼을 활용하여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지를 자가 진단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문 기관에 진단 컨설팅을 의뢰하여 교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냉난방으로 사용하는 교회 재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교회 온실가스 감축 매뉴얼에서 제시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방안과 사례는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독교환경운동연대를 통해 매뉴얼을 받아 확인할 수 있다.

- 1 종이 주보 사용량 절감
- 2 교회 차량 에너지 절감
- 3 조명의 효율적 운영
- 4 온·쿨맵시 캠페인
- 5 냉난방기의 운영 관리
- 6 창이나 문 틈새 기밀유지
- 7 대기전력 차단 제품 도입
- 8 에너지 사용량 기록 관리
- 9 탄소포인트제도 가입
- 10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 11 난방배관 청소
- 12 고효율 냉난방기 도입
- 13 단열제품 설치
- 14 건물 열 완화 조치
- 15 고조도 반사жат 달기
- 16 고효율조명(LED등) 설치
- 17 에너지 효율등급
- 18 대기전력, 절전모드
- 19 정수기 온수 사용 절감
- 20 냉장고의 효율적 운영
- 21 전열기 사용 자제
- 22 절수설비, 절수기기 설치
- 23 친환경 교통문화 참여
- 24 분리수거함 설치
- 25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생태정의와 기후위기

노회와 지역교회가 함께 만드는 생명의 지구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 주겠다.*

-호세아서 10장 12절 새번역

01 경험에 대한 성찰

1.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세계기상기구(WMO)’가 2019년 9월에 발표한 ‘전 지구 기후 보고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지난 5년을 인류의 역사상 ‘가장 뜨거운 시기’로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2019년 지구의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1도가 상승한 상태인데, 최근 단 5년 사이에 0.2도가 상승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급격한 기온상승이 예측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구평균보다 더 빠른 기온상승이 진행되고 있다.

기상청 기상연보에 의하면 2018년 우리나라의 전국 평균기온은 13.0도로, 최근 30년간의 평균온도보다 무려 0.5도가 높은 온도였다. 기상청이 발표한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 분석’ 보고서는 이번 세기 말이 되면 서울보다 북쪽에 있는 평양의 평균기온이 현재 제주도 서귀포시의 평균 기온인 16.6℃와 비슷 해져 한반도 전체가 아열대 기후가 되는 ‘기후 변화’를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기후변화는 전 세계에 국지적인 가뭄과 홍수의 증가, 농업생산 감소, 해안 저지대 침수, 대규모의 화재, 기후 난민과 분쟁 발생, 생물 멸종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먼 미래가 아닌 이미 시작된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는 기후변화로 인해 지난 수천 년간 지속되어온 기존의 기후체계의 변화로 지구 생태계가 급격히 붕괴되고 있는 ‘기후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2. 기후위기 비상사태

지난 2019년 9월, 베를린, 런던, 뉘른, 뉘른, 뉴욕 등 전 세계 150여 개 나라 400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국제 기후 파업 Global Climate Strike’ 시위가 있었다. 한국의 서울에서도 진행된 이 시위의 목표는 각국의 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사태 Climate Emergency’를 선언하고,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것이었다.

2015년에 파리에서 열린 ‘UN 기후변화 회의’에서 세계 각국의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발행하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나아가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자는 내용의 ‘기후변화 협약’(UNFCCC)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2017년에 미국 정부가 돌연 이 협약의 탈퇴를 선언하고, 각국 정부가 제출한 ‘자발적기여’(NDCs) 계획으로는 평균 기온 1.5도 이내로의 상승을 제한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에 분노한 세계 시민들은 ‘UN 기후정상 회의’를 앞두고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진 것이다. 이 자리에서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여러분이 미래세대를 실망시킨다면 우리는 결코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연설을 하며 기후 위기에 무책 임한 세계 정상들을 향한 분노를 표현하였다.

02 상황에 대한 분석

1. 기후위기의 원인

그동안 지구에는 화산폭발, 태양활동 등의 자연적인 원인으로 기후 변화가 발생했었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는 인류가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등의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온실 가스가 지구 대기에 대량으로 방출되어 지구의 복사열을 가두어 평균기온을 상승시킴으로써 일어나는 ‘지구적인 기후 시스템 Climate System’이 변화하는 현상이다.

가장 대표적인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이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약 280ppm에 머물던 지구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2015년에 무려 50% 이상이 증가한 400ppm을 넘어섰다. 그 결과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온 지구 평균기온의 급격한 상승과 동시에 극지방 빙하의 감소, 해양 온도와 산성도의 증가,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 저지대의 침수, 국지적인 가뭄과 폭우의 증가, 대규모 화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산화탄소는 발전, 수송, 석유화학 같은 직접적으로 화석연료를 소비하는 에너지산업 분야만이 아니라, 철강, 제지, 시멘트, 건설 등의 제조업을 비롯해서 농업, 축산업, 어업, 관광업 등 인간의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산업 전반에서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 결국 기후변화로 인한 현재의 위기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인류의 대량 생산과 소비의 사회경제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후변화의 원인은 이러한 산업문명을 만들어온 인간들, 우리 자신인 것이다.

2. 기후악당국가, 한국

지난 2016년, 기후변화에 관한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언론매체 ‘클라이밋 홈’ Climate Home 은 매년 32개국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행동을 조사하는 ‘기후 행동 추적’ Climate Action Tracker 의 발표 자료를 인용하여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한국을 ‘기후 악당들’ Climate Villains로 선정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독일의 민간연구소 ‘저먼 워치’ German Watch 와 ‘유럽 기후행동 네트워크’

CAN Europe 가 발표한 ‘ 기후변화 대응지수’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CCPI 에서도 한국은 조사대상 60개국 가운데서 최하위권인 58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 석탄산업 재정 투자,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BAU) 대비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등 온실가스 감축에 실제 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정부는 2017년에 기후약당국가의 오명을 벗기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을 20%로 확대하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수립하고 재생 에너지 확대, 온실가스 배출 절대량 감축,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배출권 거래제 강화 등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의 안이한 기후위기 인식으로 인한 부실한 정책과 산업계의 반발로 ‘기후약당’을 벗어나기가 어려워 보인다.

03 성서의 응답

1. 기후 난민 아브라함

구약성서의 창세기 11장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던 길에 머물게 된 하란에 정착하였 다고 이야기한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우르’는 유프라테스강의 풍부한 강수량과 주기적인 범람으로 인한 비옥한 토양을 바탕으로 관개 농업을 발전시킨 메소포타미아 남쪽의 고대도시였 다고 한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난 것으로 추정되는 기원전 2100 년경은 메소포타미아 북쪽 지역의 화산 폭발과 300년이나 이어진 긴 가뭄으로 농사와 목축이 어려워진 북쪽 평원의 유민들이 도시로 몰려들어 갑자기 도시 인구가 3배로 불어나는 사건이 발생한 시기였다. 이후 사회경제적인 위기에 봉착한 우르는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 도시가 붕괴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또한 성서는 계속해서 가나안에 정착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의 척박한 기후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창 12,13,26,42장 이야기한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과 그의 열두 아들들은 가나안 땅에 몰아닥친 기근을 견디지 못하고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어 창 46장 이집트에서의 종살이가 시작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기후 위기가 닥친 우르를 떠나 가나 안으로, 그리고 또다시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된 ‘기후 약자’이자 ‘기후 난민’이었던 것이다. 성서는 야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기후위기로 척박한 삶을 살아가던 기후 난민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늘 우리의 믿음도 기후위기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2. 부자 청년의 선택

신약성서의 마태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젊은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부자 젊은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나’ 16절 고 하자, 예수님은 그에게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21절 라고 말씀하신다.

그러자 재산이 많았던 이 젊은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근 심을 하면서 떠났다’ 22절 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산업문명을 통해 물질 적인 풍요를 누려왔다. 하지만 그 사이 온실가스의 배출로 인

한 기후변화는 지구 생태계의 위기를 고조시켰고, 이제 우리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나’는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답은 이미 분명하다. 우리가 그동안 마음대로 사용했던 화석연료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생에너지에 기대어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젊은이가 가진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을 근심한 것처럼, 그동안 누려온 화석연료의 풍요를 포기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다. 우리가 화석연료의 유혹을 내치지 못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후변화는 지구 생태계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마지막 한계점을 향하고 있다. 우리들 역시 근심 끝에 예수님을 떠나간 부자 젊은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후위기로부터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생태정의의 미래가 지금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04 영성적 실천 방안

1. 기후 약자, 생태적 약자 돌아보기

UN난민기구(UNHCR, UN Refugee Agency)에 의하면 홍수, 태풍, 산불, 가뭄, 토양 황폐화,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와 관련된 위협으로 집과 고향을 떠나는 ‘기후 난민’이 해마다 2,500 만 명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는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이용해온 물, 토양 등의 한정된 환경자원이 고갈되는 긴장을 고조시켜 세계 곳곳의 빈곤과 분쟁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그동안 상당량의 온실 가스를 배출해온 선진 산업국가가 아니라 저개발국가의 ‘기후 약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생태계에서도 인간 이외의 식물, 어류, 양서류, 파충류와 같은 기후환경 적응성이 약한 ‘생태적 약자’들이 우선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세계의 기후 불평등과 생태적 불평등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소외된 사람들을 우선 만나고 돌아보았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아온 교회는 이제 기후위기의 시대에서 가장 소외된 존재인 ‘기후 약자’와 ‘생태적 약자’를 우선 돌아보아야 한다. 자신이 배출한 탄소만큼의 ‘탄소 헌금’을 모아 기후 약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교회 재정에서 ‘기후 기금’을 조성하여서 생태적 약자들의 회복을 도모하며, 기후위기로 파괴되는 ‘창조세계의 온전성’ Integrity of Creations 을 회복하는 생태환경선교에 동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회와 노회는 생태환경선교를 맡아 감당할 ‘생태정의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2. 기후 정의, 생태 정의의 삶

교회는 지난 2,000여 년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모습을 따라 가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청빈의 영성’을 간직해왔다. 청빈의 핵심은 욕심을 스스로 절제하는 것,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욕망의 얽매임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에 있다.

기후위기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며 소비하고자 하는 인간의 무한한 욕망에서 비롯된 일이다. 때문에 기후위기에 맞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기후정의’의 삶, ‘생태정의’의 삶은 이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과 신앙인들의 공동체인 교회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영성적 과제이다.

이를 위해 신앙인들은 우선 일상에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기후정의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일회용품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생산과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표시한 ‘탄소발자국’을 살피는 최소한의 소비를 하며, 화석연료의 사용 대신 햇빛발전소 등을 통해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기후적 정의를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의 교회는 정의, 평화, 창조세계의 보전

Justices, Peace, Integrity of Creations 의 선교적 사명을 수행하는 ‘녹색교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에서 창조세계의 온전성을 회복하는 생태정의의 삶을 배우고 익히며 나눔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들이 상호의존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체험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와 정부와 기업들과 함께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과 ‘기후위기 비상행동’으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05 변화에 대한 소망

1. 기후위기 비상행동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정부, 지자체, 기업, 정당, 종교, 학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앞을 다투어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나서고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2019년 9월에 세계 150여 개 나라 400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국제 기후 파업’에 이어, 11월에는 세계 153개국의 과학자 11,000명이 국제과학학술지에 ‘기후위기에 즉각적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막대한 고통에 직면할 것’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유럽(EU) 의회, 아르헨티나, 캐나다, 뉴욕, 시드니, 우리나라의 충청남도과 당진 시를 포함한 세계 1,200개 국가와 지방정부도 ‘기후위기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200여 개의 글로벌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RE 100' Renewable Energy 100%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고, 세계교회협의회(WCC) 실행위원회에서는 '기후위기 비상사태에 관한 문서'를 공식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조직하고 기후위기의 심각한 상황을 알리는 각 분야의 전문가 등의 교육과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우선 정부가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비상상황을 선포할 것과 온실가스 배출 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정부기구와 국회의 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2. 생태적 전환

이미 기후 위기를 인식한 세계 각국은 탄소배출 저감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탄소중립이 되는 '넷제로' Net-Zero 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미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45%를 넘어선 환경 선진국 독일은 2022년까지는 모든 핵발전을 중단하고, 2038년까지는 석탄발전마저 중단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EU의회는 2050년까지 회원국들이 넷제로를 실현하여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이 될 것을 결의했다. 또한 금융기관의 화석연료 산업 투자를 금지, 탄소세 Carbon Tax 신설,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중단 등 기후변화 대응의 청사진을 담은 '그린 딜' Green Deal 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경제를 대공황 시기 '뉴딜 정책'에 준하는 동원체제로 전환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취약계층을 보호하자는 '그린 뉴딜' Green New Deal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기후위기의 긴박함과 심각성에 비해 근본적인 인식과 구체적인 대응이 아직 부족하다. 기후위기가 인류가 추구해온 인간중심주의와 성장주주의 한계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고, 이제 모든 생명과의 공존을 추구하는 '생태적 전환' Ecological Transition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절실하다. 이에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사회에

대한 기후위기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생태적 전환을 앞장서서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06 참고 자료

기후위기 비상사태에 관한 세계교회협의회 실행위원회 채택 문서

2019년 11월 스위스 보세이에서 모인 세계교회협의회 실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한다.

1. 기후 비상사태는 지역, 전국, 국제 사회 등 모든 곳의 모든 사람에 의한 긴급하고 선례 없는 응답을 요청한다. 우리는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타종교 지도자 들, 공동체들, 시민사회 기구들과 함께 힘을 모은다.
2. 우리는 이 비상사태 대응에 있어서 리더가 되어야 할 정부들의 부적절하고 심지어 퇴행적인 행동, 특히 방화와 별채를 방지하지 않는 행동, 원주민들의 조상 대대로 살아온 토지와 살림살이에 대한 파괴, 환경은 동가들에 대한 공격 등에 대하여 비통한 마음을 느낀다. 파리협정을 체결하고도 그 이행에 힘을 기울이지 않는 점, 그리고 가난한 공동체에게 부가적인 재정적 짐을 떠맡기는 조치 등도 문제이다.
3. 우리는 2019년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마드리드에서 개최 되는 제 25차 당사국 총회에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 2050년까지 탄소 중립성을 성취하고 지구 온난화를 1.5 도 선에서 유지하는 목적을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보다 야심차게 삭감하는 노력을 국가자발적기여 (NDCs)의 일부로 삼도록 요청한다.
 - 부유한 국가들이 저개발 국가들의 적응과 회복을 위해 충분하고, 예측가능하며, 투명한 기후재정을 제공하는 노력을 하도록 요청한다.
 - 기후 비상사태의 영향 때문에 재난을 겪는 사람들과 공동 체들을 지원하는 재정을

포함시키도록, 손실과 피해에 관한 바르샤바 국제 메커니즘의 강화를 요청한다.

-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협약을 넘어서 원주민들과 만나고 그들로부터 배우며, 생명 다양성을 보호하고, 숲을 지키며, 생태농업을 격려하고, 순환경제를 구축하는 행동들을 촉진하도록 요청한다.

4. 우리는 유엔의 파트너들이 유엔 자료들에 근거한 비판적 연구와 정책 조언과 일관성을 지키도록 자신들의 은행과 연기 금에서 화석연료 투자가 있는지 검토해보고 투자를 회수하도록 권유한다.
5. 우리는 회원 교회들, 에큐메니컬 파트너들, 타종교 공동체 들, 선의와 도덕적 양심을 지닌 모든 사람들에게 정부들이 지속적으로 적합한 행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 행동을 하는 상황에서 파생될 가장 파국적 결과들을 피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상황에서 유의미한 공헌을 할 수 있는 수단을 발견하기를 요청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후변화의 완화, 적응,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힘을 모으는 운동 advocacy 과 함께 교회, 공동체, 가정, 개인 등 모든 단위에서 실천하는 지역적 행동을 통해서 이 전 지구적 위기에 함께 대처해야 할 것이다.

[번역 : 배현주 문서 전문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생태정의와 생명의 다양성

노회와 지역교회가 함께 만드는 생명의 지구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 주겠다.

- 호세아서 10장 12절 새번역

01 경험에 대한 성찰

1. ‘랩스 청개구리’의 멸종

2016년 9월 26일, 미국 애틀랜타 식물원에서 살아있는 개체가 확인된 마지막 ‘랩스 청개구리 Rabbs’ Fringe-limbed Treefrog , 학명

Ecnomiohyla rabborum ’가 죽은 채 발견되었다. 원래 랩스 청개구리는 향아리곰팡이 Chytrid Fungus 전염병의 확산으로 양서류의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는 파나마 엘발레드 안톤의 열대우림에서 살고 있었다. 청개구리라는 이름과 달리 갈색의 피부로 몸집이 큰 편이었던 랩스 청개구리는 열대 우림의 다른 개구리들처럼 나무 위에 고여 있는 물에서 살아가며 벌레들을 잡아먹었는데, 특이

생태정의와 생명다양성

하게도 랩스 청개구리는 암컷이 알을 낳아 올챙이로 자라면 수컷이 올챙이에게 자신의 피부 조각을 먹여서 키우는 독특한 생존 양식을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 랩스 청개구리

는 애틀랜타 식물원으로 이송되어 사람들의 관심 속에 멸종위기 양서류 복원사업을 진행했지만 끝내 ‘멸종’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생물의 멸종은 열대우림에 서식하는 양서류만의 문제가 아니다. 영국의 왕립식물원은 1750년 이후로 571종의 식물이 멸종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세계자연보존연맹 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은 2010년대에만 467종의 생물이 멸종되었고 수십 년 안에 16,928종의 생물이 멸종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과학기구 IPBES 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는 머지않아 지구에서 살아가는 800만 종의 동식물 가운데 100만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지금 우리는 대멸종의 시대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2. 한반도의 ‘멸종 위기’ 생물

‘한국 전나무 (Korean Fir)’로 불리며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트리 나무로 인기가 높은 ‘구상나무 학명 (Abies koreana)’는 한반도의 빙하기에서도 살아남아 한라산, 지리산, 백운산, 덕유산, 가야산, 속리산 등 해발 1,000m 이상의 척박한 고산지대에서 서식하는 한국 고유의 식물이다. 하지만 최근 한라산과 지리산 일대 구상나무 군락의 90%가 빠른 속도로 고사하는 등 야생 구상나무의 멸종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때문에 세계자연보존연맹 (IUCN)이 발간하는 멸종위험이 높은 생물들의 분포 및 서식 현황을 수록한 ‘적색목록 (Red List)’은 한반도의 야생 구상나무를 ‘절멸 위기 EN (Endangered)’종으로 지정하고 관찰과 보호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세계자연보존연맹의 적색목록은 한반도에서 살았던 바다 사자를 이미 멸종을 맞은 ‘절멸 (EXExtinct)’종으로, 늑대, 표범, 호랑이, 따오기, 크낙새, 종어, 소똥구리 등 13종을 멸종되었지만 인위적인 복원으로 생존개체가 남아있는 ‘지역절멸 (EWExtinct in the Wild)’종으로, 사향노루, 넓적부리도요, 광릉요강꽃, 섬국수 나무, 버들가지, 울릉도 달팽이, 장수하늘소, 물거미 등 58종을 야생에서 멸종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절멸 위

급 (CRCritically Endangered) '종으로, 여우, 반달가슴곰, 구렁이, 검독수리, 황새, 무주나무, 복주머니란, 미호종개, 수원청개구리, 큰논우렁이, 대모잠자리, 주홍거미 등 169종을 구상나무와 같은 멸종 가능성이 높은 '절멸 위기' 종으로 지정하여 한반도 생물의 멸종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02 상황에 대한 분석

1. 생명다양성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식품, 의약품, 공산품 등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양한 식물과 동물들로부터 얻어 왔다. 식량 생산에는 다양한 수분 곤충이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의약품 역시 다양한 식물과 미생물에서 추출한 약용 성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산품의 원료 또한 다양한 동식물에서 얻는 천연물질이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양한 미생물들은 생태계에서 분해자로서 대기와 토양과 물을 정화하여 지구의 적절한 기후조건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고, 다양한 동식물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숲이 없으면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을 통한 지구 대기 성분의 균형도 불가능하다. 이처럼 다양한 생명체들은 지구가 베풀어주는 온갖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인간의 생존뿐만 아니라 지구 생태계의 안정적인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지구 생태계는 다양한 생물들이 각각의 생태적 지위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증진시킴으로써 '생명다양성'(생물다양성 Biodiversity)을 확대시켜 왔다. 생명다양성이란 '생물학적 다양성 Biological diversity'을 줄인 말로, 지구의 한 지역 안에 다양한 생물 개체들이 서식하는 생물 종 Species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같은 종 안의 여러 집단들 사이의 다양한 유전자 Gene의 다양성과, 생물들이 서식하는 환경과 생물들의 상호 작용에 관한 생태계 Ecosystem의 다양성을 함께 아우르는 개념이자, 지구 생태계의 안정성과 건강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2. 생명다양성의 감소

지금 우리는 생명다양성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다. 지난

2019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 7차 생물다양성과과학기구(IPBES) 총회 에서 채택된 ‘지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에 대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보고서’는 생명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농경지 확대와 도시 개발, 해안 매립으로 인한 생물의 서식공간의 분절과 감소, 야생 동물의 밀렵과 희귀식물의 채취 등불법 포획과 남획의 증가, 인간의 산업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확산, 인간에 의한 인위적인 외래종의 침입, 그리고 기후변화를 지목하고 있다.

특히 인간의 산업 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는 생명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여타 요소들의 영향을 더욱 악화시키는 가장 광범위하고 심각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가뭄, 홍수, 폭염 등과 같은 기상 이변을 발생시키고, 해양의 산성도를 높이며, 해수 면을 상승시켜 해안 토지의 침수를 일으키고, 새로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출현을 유발한다.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 서식 환경의 극적인 변화는 환경적응성이 약한 종들의 개체를 빠르게 감소시키고 유전적 변이와 생태계의 불안정성을 증가시켜 생명 다양성을 감소시키게 된다. 때문에 생물다양성과과학 기구(IPBES)는 생명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지역에서부터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기술, 경제, 사회적 요인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03 성서의 응답

1. 모든 생명을 살피시는 하나님

구약 성서의 첫 장인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의 풀과 나무, 물고기, 새, 짐승을 ‘각각의 종류대로’ 손수 만드셨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창세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명들을 ‘다스리는’ 사명을 받은 존재라고 이야기한다. 성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의 동산이고, 다양한 생명들은 모두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감격하신 고귀한 존재라는 고백에서 시작되고 있다. 또한 성서는 창조세계의 다양한 생명을 다스리고 돌보는 일, 지구의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일이 인간의 본원적인 사명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구약 성서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이 사람 들만이 아니라 생물들

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창세기 9장은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생명들이 사라진 것을 후회하시며 다시는 홍수로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셨다고 이야기한다.

요나서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짐승들의 생명을 아끼고 계시며 니느웨 성의 멸망을 바라는 요나를 꾸짖으셨다고 이야기한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세계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으로 여기시고, 사람들과 모든 생명을 함께 살피시며 아끼고 계신다.

하지만 예레미야서 12장 4절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본분을 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 ‘생명들이 씨가 마르는’ 참혹한 멸종이 창조세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2. 생명을 풍성하게 하신 그리스도

신약성서의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근심과 걱정애 사로잡혀있는 사람들에게 ‘공중의 새를 보아 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아매기만 하는 율법이 아니라 창조세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여러 생명들을 돌아보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삶의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되는 방법이라고 가르쳐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뿐만이 아니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겨자, 밀, 누룩, 까마귀, 독수리, 양, 이리, 낙타, 뱀, 돼지, 여우, 개, 소, 나귀, 닭 등의 다양한 생명들을 비유로 사람들을 가르치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창조세계의 모든 생명들을 통해 제자 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인도하셨던 것이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이야기하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생명을 다스리고 돌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이 땅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임을 선언한 것이다.

신약 성서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은 ‘새 하늘 새 땅’을 생명수가 흐르는 강의

양쪽에서 자라는 열두 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자라는 모습으로 이야기한다. 이 생명나무는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성서는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 하여 다양한 생명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세계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04 영성적 실천 방안

1. 창조영성, 생태영성의 회복

신앙의 눈으로 볼 때 한 생물종의 멸종은 단순히 생명다양성의 감소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된 세계의 온전성 (Integrity of Creations) 이 훼손되어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상태로 돌아 서는 ‘타락의 사건’이다. 때문에 교회는 생물다양성 위기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일을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선교 사역으로 인식해야 한다.

교회는 인간의 생태계 파괴로 멸종 위기에 처한 모든 생물들을 ‘생태적 약자’로 바라보고, 생명다양성을 회복하여 ‘생태정의’ 를 이루는 일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지구 생태계의 모든 생명들을 창조세계의 구성원으로 상호의존의 관계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약하고 아픈 생명들에게 돌봄과 보살핌을 나누는 ‘창조영성-생태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탈리아의 아시시에서 가난과 청빈의 생활양식을 지키는 ‘작은 형제회’ 수도회를 설립한 프란치스코 (1181~1226) 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형제, 자매’로 부르며 동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한다. 프란치스코는 새들을 자매라 부르며 설교를 하였으며, 마을 사람들을 공격한 늑대를 형제라 부르며 먹을 것을 줄 테니 공격을 중단하라고 설득하며 축복을 해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때문에 성공회, 루터교, 가톨릭 교회 에서는 프란치스코를 동물과 생태계의 수호성인으로 시성하여 프란치스코의 생물들을 향한 사랑과 보살핌을 기념하고 따르고 있으며, 10월 4일을 축일로 정하여 ‘동물 축복식’을 갖고 있다.

2. 생태정의를 위한 행동

신약 성서에서 ‘세상’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그리스어 ‘오 이쿠메네 (Oikoumene)’는 ‘집’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오이코스 (Oikos)’에서 비롯되었다. 그리스어 오이코스는 단순히 공간으로서의 집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집에서 살아가는 가족들, 집에서 하는 일들, 그리고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식물들을 모두 아우르는 ‘한 집안’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였다. 그리고 오이코스에서 영어의 ‘생태학 (Ecology)’이라는 단어와 함께 ‘경제 (Economy)’라는 단어가 파생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으로 가득한 집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오직 경제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며 생명의 죽음을 방치해왔다. 이제 교회는 경제적인 시각과 함께 생태적인 시각을 회복하여 이 세상을 온전한 하나님의 집으로 가꾸어야 한다.

창조세계의 온전성이 파괴되어 회복불능의 위기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는 생명다양성의 보전에 앞장서는 생명의 방주가 되어야 한다.

지역교회에서는 멸종위기 생물들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멸종 위기 생물들을 위해 기도하며 지역 사회의 멸종위기 생물을 보호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멸종위기 생물들의 서식지 보호와 복원을 위한 기금 마련, 멸종위기 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무분별한 개발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 표명, 멸종위기 생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인증 제품의 구매 등도 좋은 활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노회에서는 ‘생태정의위원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의 ‘생물다양성협약(CBD)’ 준수 여부와 지역의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의 ‘생태계보전’ 목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05 변화에 대한 소망

1. 생물다양성협약

1970년대부터 국제사회는 멸종위기 생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등의 국제협약을 통해 생명다양성 보전에 힘을 쏟아왔지만,

1980년대 이후 열대우림 지역이 더 빠른 속도로 훼손되면서 생물종의 멸종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다. 때문에 ‘유엔환경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에서는 가입국의 생명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 및 감시, 보호지역의 설정, 종자은행 설립, 생물다양성 보전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수행 등의 의무 이행과 함께, 가입국가 간의 생명공학기술 등 생물다양성 보전기술의 이전 촉진,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안전한 국가 간 이동 및 관리, 개도국의 협약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등의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물다양성협약 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을 마련하여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196개 국가와 기관이 이 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협약이행을 검토하고 진행하는 당사국총회 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를 개최하고 있는데, 지난 2014년 제 12차 총회는 우리나라의 평창에서 개최되었으며, 제 15차 당사국총회는 2020년 중국의 쿤밍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명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분야의 과학적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각 국가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전달하는 생물다양성과학기구를 통해 당사국의 생명다양성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2. 우리나라의 야생생물 복원 사업

1983년 설악산에서 밀렵꾼의 총을 맞고 죽은 반달가슴곰을 마지막으로 한반도에서 더 이상 야생 반달가슴곰이 관찰되지 않아 멸종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2000년에 지리산국립공 원공단이 설치한 카메라에 야생 반달가슴곰 가족이 포착되고, 이 사건을 통해 2004년도부터 국립공원공단에서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이제는 지리산의 수용 한계에 이를 정도로 반달가슴곰의 개체수가 회복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반도의 생명다양성을 제고하고 생태계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과 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증식·복원 종합계획’에 의해 ‘국립공원 생물종보존원’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야생생물 복원사업은 복원 대상으로 지정된 64종의 멸종위기 생물 가운데 우선적으로 산양, 여우, 따오기, 남생이, 맹꽁이, 풍란, 장수하늘소 등 25종의 ‘우선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멸종위기 종은 모두 270여 종으로 지금보다 더욱 많은 복원사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멸종위기종 복원센터’를 만들어 관련 업무를 통합하고, 개체 증식과 보충 위주로 복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서식지를 먼저 분석하고 개선하는 ‘서식지 기반 보전 체계’로 복원 방식을 전환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시민 대표들이 참여하는 ‘멸종위기종 보전 정책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06 참고 자료 한반도 멸종위기 야생목록

멸종위기 1급 (총 60종)

멸종위기 1급(총 60종)	
곤충류	붉은점모시나비, 비단벌레, 산굴뚝나비, 상제나비, 수염풍뎅이, 장수하늘소
무척추동물	귀이빨대칭이, 나팔고둥, 남방방게, 두드럭조개
양서류	원청개구리
어류	감돌고기, 꼬치동자개, 남방동사리, 모래주사, 미호종개, 얼룩새코미꾸리, 여울마자, 임실납자루, 줌수수치, 통사리, 흰수마자
육상식물	광릉요강꽃, 금자란, 나도풍란, 만년콩, 비자란, 암매, 죽백란, 털복주머니란, 풍란, 한라솜다리, 한란
조류	검독수리, 넓적부리도요, 노랑부리백로, 두루미, 매, 멧황새, 저어새, 참수리, 청다리도요사촌, 크낙새, 호사비오리, 흑고니, 황새, 흰꼬리수리
파충류	비바리뱀
포유류	늑대, 대륙사슴, 반달가슴곰, 붉은박쥐, 사향노루, 산양, 수달, 스라소니, 여우, 작은관코박쥐, 표범, 호랑이

멸종위기 2급(총 207종)	
균류	화경버섯
곤충류	깊은산부전나비, 꼬마잠자리, 노란잔산잠자리, 닳무늬길앞잡이, 대모잠자리, 두점박이사슴벌레, 똥보주름메뚜기, 멧조롱박딱정벌레, 물방개, 물장군, 소똥구리, 쌍꼬리부전나비, 애기뿔소똥구리, 여름어리표범나비, 왕은점표범나비, 은줄팔랑나비, 참호박뒤영벌, 창언조롱박딱정벌레, 큰자색호랑꽃무지, 큰홍띠점박이푸른부전나비
무척추동물	갯게, 거제외줄달팽이, 검붉은수지맨드라미, 금빛나팔돌산호, 기수갈고동, 깃산호, 대추귀고동, 둔한진총산호, 망상맵시산호, 물거미, 밤수지맨드라미, 별혹산호, 붉은발말뚝게, 선침거미불가사리, 연수지맨드라미, 염주알다슬기, 울릉도달팽이, 유착나무돌산호, 의염통성게, 자색수지맨드라미, 잔가지나무돌산호, 착생깃산호, 참달팽이, 측맵시산호, 갈세오리옆새우, 해송, 흰발농게, 흰수지맨드라미
양서류	고리도롱뇽, 금개구리, 맹꽁이
육상식물	가는동자꽃, 가시연, 가시오갈피나무, 각시수련, 개가시나무, 개병풍, 갯봄맞이꽃, 검은별고사리, 구름병아리난초, 기생꽃, 끈끈이귀개, 나도승마, 날개하늘나리, 넓은잎제비꽃, 노랑만병초, 노랑붓꽃, 단양쑥부쟁이, 닳꽃, 대성쓴풀, 대청부채, 대홍란, 독미나리, 두잎약난초, 매화마름, 무주나무, 물고사리, 방울난초, 백부자, 백양터부살이, 백운란, 복주머니란, 분홍장구채, 산분꽃나무, 산작약, 삼백초, 새깃아재비, 서울개발나물, 석곡, 선제비꽃, 섬개야광나무, 섬개현삼, 섬시호, 세뿔투구꽃, 손바닥난초, 솔밭꽃, 솔잎난, 순채, 신안새우난초, 애기송이풀, 연잎평의다리, 왕제비꽃, 으름난초, 자주망귀개, 전주물꼬리풀, 정향풀, 제비동자꽃, 제비붓꽃, 제주고사리삼, 조름나물, 죽절초, 지네발란, 진노랑상사화, 차겉이란, 참물부추, 초령목, 칠보치마, 콩짜개란, 큰비늘꽃, 탐라란, 파초일엽, 피뿌리풀, 한라송이풀, 한라옥잠난초, 해오라비난초, 흑난초, 홍월굴, 황근
조류	개리,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검은머리족새, 검은목두루미, 고니, 고대갈매기, 긴꼬리딱새, 긴점박이올빼미, 까막딱다구리, 노랑부리저어새, 느시, 독수리, 따오기, 뜰부기, 무당새, 물수리, 벌매, 붉은배새매, 붉은어깨도요, 붉은해오라기, 뿔쇠오리, 뿔종다리, 새매, 새호리기, 섬개개비, 솔개, 쇠검은머리쑥새, 수리부엉이, 알락개구리매, 알락꼬리마도요, 양비둘기, 올빼미, 재두루미, 잿빛개구리매, 조롱이, 참매, 큰고니, 큰기러기, 큰덤불해오라기, 큰말뚝가리, 팔색조, 향라머리검독수리, 흑기러기, 흑두루미, 흑비둘기, 흰목물떼새, 흰이마기러기, 흰죽지수리
파충류	구렁이, 남생이, 표범장지뱀
포유류	담비, 무산쇠족제비, 물개, 물범, 샴, 큰바다사자, 토끼박쥐, 하늘다람쥐
해조류	그물공말, 삼나무말

생태정의와 기후행동

노회와 지역교회가 함께 만드는 생명의 길 초록발자국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 주겠다.*

- 호세아서 10장 12절 새번역

01 경험에 대한 성찰

빠르게 진행되는 기후변화

지난 2021년 2월, 북극권에서 발생한 강력한 고기압으로 인해 미국 전역에 폭설과 한파가 몰아닥쳤다. 특히 겨울이 아무리 추워야 5~10°C 사이였던 미국 남부 지역의 기온이 영하 20도로 떨어져 미국 알래스카 지역의 온도보다 낮아지는 역대급 이상 기상현상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미국 전역에서 6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전기, 수도 등 기간시설의 가동중단으로 인한 엄청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비슷한 시기 중국 남부 지역과 대만에서도 갑자기 몰아닥친 한파로 100명 이상이 사망 하는 등 북반구 곳곳에서 이상 기상현상이 발생했다.

이 한파의 원인은 기후변화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의 온도상승으로 차가운 공기를 차단하는 에어커튼 역할을 하던 제트기류가 약해져 북극의 찬 공기가 중위도 지역까지 밀려온 것이다. 문제는 이대로 기후변화가 지속되면 2030년 여름이 되면 북극의 해빙이 완전히 녹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극의 해빙이 사라진다면 북극의 온도는 더욱 상승하게 될 것이고, 2021년 2월과 같은 이상 기상현상은 평범한 일상이 될 것이다.

2021년 4월에는 ‘세계기상기구(WMO)’에서 ‘2020 글로벌 기후현황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은 2016년, 2019년과 함께 역대 가장 따뜻한 3년 중 한 해였으며,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 가장 더운 10년으로 측정이 되었다. 특히 2020년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인 1850 ~1990년보다 1.2°C가 높았고, 북극 해빙 면적은 최소 374km² 로 역대 두 번째로 작았던 것으로 보고가 되었다. 현재 지구평 균기온 상승은 지구의 지질학적인 시간 속에서도 유래를 찾을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02 상황에 대한 분석

더디기만 한 기후위기 대응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구평 균기온 상승을 1.5°C 이내로 제어해야 한다는 특별 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가 2030년까지 2010년에 비해 탄소배출을 45% 감축해야 하고, 2050년까지는 실제적으로 탄소배출이 없는 ‘순배출 제로 Net zero ’를 달성해야 한다고 세계 각국 정책 입안자들에게 권고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자발 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NCD)를 세우고 이를 국제연합(UN) 에 보고했다.

그러나 2021년 2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분석해보니, 2030년이 되어도 2010년 대비 탄소배출이 1%밖에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국제연합(UN)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 우리는 지금 기후 붕괴로 인한 낭떠러지 끝에 서 있으며, 2021년은 기후 행동의 해가 되어야 한다.”며 세계 각국의 보다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을 촉구했다.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경제국들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는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기후위기 대응의 수위와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과 아울러 민간부문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뒤를 잇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시민 사회에서도 정부와 거대 기업이 주도하는 ‘그린 뉴딜 (Green New Deal)’과 같은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역 공동체와 시민사회, 사회적 경제가 ‘탈성장 담론’을 통해 지방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를 주도해야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03 성서의 응답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생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2)고 이야기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생활을 권면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새로운 생활은 세상의 판단과 기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르는 생활이었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창조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르는 새로운 생활이 무엇인가를 깊이 성찰해보아야 한다.

그동안 그리스도인들 역시 기후위기의 원인인 탄소를 거리낌 없이 배출해왔다. 먹고, 입고, 지내는 모든 시공간과 문화와 경제 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창조세계인 지구생태계에 기후위기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분별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탄소를 배출하는 생활에 머물러서는안 된다. 이제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이 기후위기를 불러왔음을 참회하며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새로운 생활을 살아가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생활은 탄소배출이 없는 생활이다.

우선 일상의 생활에서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실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 사회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경제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 생명이 중심이 되는 생명의 경제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생태적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생태적 전환에 나서는 일은 기후위기 시대에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르는 새로운 생활이다.

04 영성적 실천 방안

1. 식생활 : 기후 미식 (Climate gourmet)

기후미식은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강한 식생활이다. 전지구적으로 식품의 생산과 운송, 보관, 폐기를 위해 많은 양의 탄소가 배출되고 있다. 특히 육류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는 전체 탄소 배출의 약 22%를 차지한다. 소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곡식 7kg과 물 10만 리터가 필요 하며, 운송과 포장 과정까지 포함하면 무려 60kg의 탄소가 배출 된다고 한다. 지금 당장 육류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밥상에서 배출되는 상당량의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식품이 먼 거리, 심지어 지구 반대편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동하기 위해서는 냉장, 냉동 상태로 이동해야 하는데, 그과정에서 이산화탄소의 발생이 급격히 증가한다. 글로벌 푸드를 내가 살아가는 인근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되는 식품인 로컬 푸드로 대체하게 되면 식품의 이동 거리가 짧아져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뿐만이 아니라 지역 식품 생산자들의 안정적인 생산 환경 조성, 소비자의 안전한 식품 확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 4:34)

채식에 참여 합시다

- 집에서 : 채식에 참여하고 채식을 늘려갑시다.
- 교회에서 : 채식 중심의 공동식사를 준비합시다.
- 지역사회에서 : 공공급식에서 채식을 확대해 나갑시다.

로컬푸드를 확대 합시다

- 집에서 : 탄소배출이 적은 로컬푸드를 이용합시다.
- 교회에서 : 도시 농촌 교회가 로컬푸드 교류에 나섭시다.
- 지역사회에서 : 로컬 푸드 매장과 식당 운영을 확대해 나갑시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후 미식의 실천은 더 건강한 음식을 먹게 된다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때문에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지역사회에서도 채식과 로컬 푸드의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면 무척 작은 노력만으로도 탄소배출 저감과 건강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패션 : 슬로우 패션 (Slow fashion)

‘슬로우 패션’은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패션 문화를 뜻한다. 옷을 생산하고 유통, 소비, 폐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탄소가 배출되는데 특히 원 재료에서 섬유를 가공하는 방직, 표백, 염색의 과정에서 많은 양의 탄소가 발생한다. 패션 산업은 현재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약 4%에 해당하는 연간 12억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데, 패션 산업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라 2030년이 되면 패션 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연간 27억 톤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그런데 큰 문제는 상당량의 옷들이 유행이 지났다는 이유로 폐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버려지는 옷들이 1시간에 1톤에 이를 정도로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 패션 산업계는 이윤을 위해 의도적으로 새로운 유행을 창출해 소비자가 새로운 옷을 구매하도록 유도한다. 옷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옷들은 분해되어 미세플라스틱이 만들어 지기도 한다. 때문에 옷은 구매할 때부터 폐기를 염두에 두고 구입을 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가급적 천연섬유, 단일 섬유로 만든 옷을 구매하고, 적절한 관리와 수선을 통해 오래 옷을 입음으로써 옷에서 비롯되는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 우리의 옷장을 유행을 따르기 위한 ‘패스트 패션’ 대신 생명의 가치를 입는 ‘슬로우 패션’으로 채움으로써 진정한 패셔니스트가 될수 있는 것이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지요” (눅 3:11)

소박한 옷장을 만듭시다

- 집에서 : 친환경적인 옷을 필요한 만큼만 구매합니다.
- 교회에서 : 안 입는 옷을 서로 바꾸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 지역사회에서 : 녹색가게 운영을 확대해 나갑니다.

재활용 Up-cycling 을 합시다

- 집에서 : 수선과 리폼을 생활화 합니다.
- 교회에서 : 재활용 정보를 공유하고 안내합니다.
- 지역사회에서 : 재활용 공방 운영을 확대해 나갑니다.

3. 주저 : 미니멀 라이프 (Minimal life)

‘미니멀 라이프’란 불필요한 소비를 없애 탄소배출을 줄이는 생활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은 생산, 구매, 소비의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한다. 우리는 그동안 더 많은 것을 소비하는 것이 미덕인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소비가 지구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채운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엇인가를 소비 하는 일을 멈추지 못하는 지독한 ‘소비 중독’에 빠져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넘쳐나는 일회용품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비한 물건들은 언젠가는 모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쓰레기가 되고 만다.

우리가 버린 물건들을 분리수거를 통해 최대한 재활용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분리수거 된 물품들이 재활용되는 비율은 약 40% 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나머지는 폐기물로 소각, 매립 처리 된다. 그리고 소각과 매립 과정에서 또다시 상당량의 탄소가 배출되고 환경오염이 발생한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요 6:12)

덜 쓰고 오래 사용합시다

- 집에서 : 꼭 필요한 물건만 구매합시다.
- 교회에서 : 나에게 불필요한 물건을 서로에게 나눕시다.
- 지역사회에서 : 탄소배출이 적은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합시다.

제로 웨이스트 Zero waste 에 참여합시다

- 집에서 : 제로 웨이스트 가게를 이용합시다.
- 교회에서 :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다회용품을 준비합시다.
- 지역사회에서 : 제로 웨이스트 가게 운영을 확대해 나갑시다.

이처럼 쓰고 버리는 소비의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된다면, 탄소배출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덜 쓰고 더 오래 사용하여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우리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 인지를 생각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최소화하고,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만이 아니라 공동체적,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제도와 정책의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4. 교통 : 녹색 교통 (Green transport)

‘녹색 교통’이란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교통수단을 의미한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은 연소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물질도 함께 배출한다. 같은 거리를 이동한다고 했을 때 가장 탄소배출이 적은 교통수단은 기차이고 버스, 승용차, 비행기의 순으로 탄소 배출이 많아지는데, 1km를 이동한다고 했을 때 비행기는 기차에 비해 20배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도 현재로서는 화석연료로 만든 전기와 수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전히 탄소를 배출하는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재생에너지가 확대되어 재생에너지로 만든 ‘그린 전기’와 ‘그린 수소’를 사용하게 된다면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도 탄소배출이 없는 교통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전까지는 탄소배출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교통수단은 자전거이다. 특히 도시에서 공공자전거 인프라가 확대된다면 탄소배출과 함께 교통체증과 미세먼지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교통수단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자전거와 함께 버스, 기차와 같은 공공교통을 이용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승용차 중심의 교통 시스템을 자전거와 공공교통 중심의 녹색교통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지역 공동체에서 녹색교통을 지원하는 제도와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막 16:12)

자전거를 이용합시다

- 집에서 : 일상생활에서 자전거를 이용합시다.
- 교회에서 : 자전거 주차대와 수리함을 설치합시다.
- 지역사회에서 : 자전거 편의시설을 확대해 나갑시다.

공공교통을 이용합시다

- 집에서 : 버스, 기차 등 공공교통을 이용합시다.
- 교회에서 : 자동차 없는 날을 정하고 알립니다.
- 지역사회에서 : 공공교통을 이용을 확대해 나갑시다.

5. 에너지 : 그린 에너지 (Green energy)

‘그린 에너지’는 탄소배출이 없는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이다. 이제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는 핵발전과 화석 연료발전보다 더 저렴하고 안전하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때문에 그린 에너지 선진국에서는 탄소배출의 주된 원인인 화석연료발전소를 조기폐쇄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라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 곳에 집중적으로 설치된 재생에너지 시설은 많은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생산을 여러 지역으로 분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에너지 소비가 가장 큰 냉난방 분야에서 기기의 효율을 높이고, 적절한 냉난방 온도를 유지하며, 냉온열 가전제품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화석연료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탄소 배출을 저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과 산업의 에너지 소비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에너지 소비의 효율을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윗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약 1:17)

에너지 소비를 줄입니다

- 집에서 : 냉온열 가전제품을 적절하게 관리합니다.
- 교회에서 :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적정 온도를 유지합니다.
- 지역사회에서 :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알리고 활성화합니다.

햇빛발전소를 설치합니다

- 집에서 : 가정과 일터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합니다.
- 교회에서 : 옥상, 주차장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합니다.
- 지역사회에서 : 에너지 협동조합 운영을 확대해 나갑니다.

탄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스마트한 에너지 소비자인 동시에 그린 에너지를 생산하는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의 소규모 에너지 생산자가 협력하는 에너지 생산협동조합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 구조를 전환하는 산업정책의 수립과 함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필요하다.

6. 문화 : 녹색 서재 green library

‘녹색서재’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문화생활이다. 최근 세계적인 감염병의 확산으로 비대면 모임이 확대되어 데이터의 사용이 급증하고 통신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데이터의 제작과 전송에는 전기가 사용되기 때문에 통신 산업의 탄소배출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 세계적으로 고품질의 데이터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통신 분야의 탄소배출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데이터의 소비를 차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텔레비전과 컴퓨터, 핸드폰의 전원을 의식적으로 끄고, 탄소배출이 없는 문화생활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곳곳에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독서문화의 장인 녹색 서재를 만드는 일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탄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저장하는 숲을 복원하고 건강하게 가꾸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 숲과 함께 염습 지, 갯벌은 단순히 탄소의 저장뿐만이 아니라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귀중한 생태자원으로 복원과 보전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 일상에서 종이 사용을 줄이고, 재생지를 사용하며, 도심 숲을 조성에 참여하는 것도 숲을 복원하는 일이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식담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약 1:17

영상을 끄고 책을 봅시다

- 집에서 : 핸드폰과 TV 없이 지내는 시간을 가집시다.
- 교회에서 : 도서관을 만들고 책 읽는 모임을 만듭시다.
- 지역사회에서 : 공공 도서관을 운영하고 확대해 나갑시다.

숲을 가꾸시다

- 집에서 : 집과 일터에서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합시다.
- 교회에서 : 정원을 만들고 숲을 가꾸는 일에 참여합시다.
- 지역사회에서 : 숲을 만들고 가꾸는 일을 확대해 나갑시다.

7. 경제 : 생명의 경제 (economy of life)

생명의 경제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 제도다. 현재의 경제 제도는 경제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구의 생태계와 생명을 희생시켰고 그 결과가 기후위기로 나타난 것이다. 이미 기업들에서도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탄소배출을 줄여나가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라는 대안적인 경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생명의 경제에 대한 상상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에 투자를 철회하고, 대신 탄소배출을 줄여나가는 녹색 투자를 통해 탄소 배출이 없는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산업구조정정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탄소배출이 없는 산업으로 안전하게 일자리를 이전할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신 30:19)

녹색 투자에 참여합시다

- 집에서 : 탄소배출이 적은 기업에 투자합시다.
- 교회에서 : 자산, 기금을 녹색금융을 통해 운용합시다.
- 지역사회에서 : 정의로운 전환으로 건강한 일자리를 만듭시다.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합시다

- 집에서 : 생활협동조합에 가입하고 이용합시다.
- 교회에서 : 협동조합을 만들어 선교사업에 활용합시다.
- 지역사회에서 :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를 육성합시다.

또한 에너지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과 같은 생태적 가치,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는 다양한 사회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기업들을 통해 사회적 경제를 확대하여 우리 사회의 생태적 전환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05 변화에 대한 소망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

거대한 흐름으로 밀려오는 기후위기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움과 동시에 무기력함을 느끼게 된다. 이러다가는 머지않아서 인간 문명의 붕괴와 함께 모든 생물의 대멸종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데 그러한 위기를 막아내기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너

무 작고 초라해 보이기만 하다. 더군다나 창조세계의 온전성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서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마저 아직은 기후행동에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정의, 평화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신 일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긴 여정이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정에서 사람들에게 성서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며, 제자들을 만나 훈련시키셨고, 다른 생각을 하는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당신의 뜻을 나누셨다.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그 여정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험하고 먼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당신의 걸음으로 흔들림 없이 걸어가셨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십자가의 언덕을 향한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다.

길은 회색으로 물들어 생명의 기운이 희미해지는 창조세계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초록 발자국을 남길 때이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의 외로운 발자국이라 할지라도, 머지않아 온 땅과 하늘을 초록 발자국으로 푸르게 물들이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미 우리보다 앞서 이 길을 걸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제 우리가 기후행동의 큰 발자국을 만들어 낼 때이다.

협약식 단체 임원 조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직책	성명	시무교회	노회
총회장	류영모	한소망	서울서북
부총회장	이순창	연신	평북
부총회장	이월식	경기중앙	안양
서기	조환국	예본	인천
부서기	김한호	춘천동부	강원
회록서기	황세형	시온성	전북
부회록서기	허요환	안산제일	서울강서
회계	전학수	진주대광	진주남
부회계	김진호	광석교회	서울동
사무총장	김보현	총회	서울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직 책	성 명	노 회	교 회
회장	강찬성 장로	영등포	목민
직전회장	전학수 장로	진주남	대광
수석부회장	김영창 장로	강원	새중앙
부회장	김대진 장로	서울	연동
부회장	김승호 장로	서울서	희성
부회장	김종학 장로	경기	한사랑
부회장	김상선 장로	서울강남	묘동
부회장	김영문 장로	대전서	강경중앙
부회장	박상기 장로	함해	행복이가득한
부회장	송성강 장로	군산	임피제일
부회장	박종식 장로	순천	한소망
부회장	김병수 장로	경남	더사랑
부회장	하태환 장로	경동	강동중앙
서 기	박건영 장로	인천	주안
부 서 기	문용식 장로	평남부산	우이동
부 서 기	김병수 집사	포항	기쁨의
회록서기	최장순 장로	인천동	동춘
부회록서기	정기호 장로	부천	참된
부회록서기	김태영 장로	제주	제주성산
회 계	정성철 장로	서울강북	성북중앙
부 회 계	최진수 장로	서울남	주현
부 회 계	송영호 장로	전주	남강
감사	김기우 장로	서울서북	구파발
감사	배상범 장로	강원	해안중앙
감사	박중한 장로	대구동	효목중앙
총 무	김창만 장로	인천동	임마누엘

여전도회전국연합회

번호	직책	이름	직위	소속
1	회장	최효녀	장로	신성북
2	부회장	은정화	권사	방림
3	부회장	이난숙	권사	천성
4	부회장	김혜옥	장로	영주동산
5	부회장	송정경	장로	본동
6	부회장	박금숙	권사	대구평강
7	부회장	서영란	장로	남광
8	부회장	장미화	권사	광양제일
9	부회장	김미순	장로	제주영락
10	서기	민양기	장로	창동염광
11	부서기	최숙희	권사	통리
12	회의록서기	신미경	장로	청주북부
13	역사기록서기	한미옥	권사	수유제일
14	역사기록서기	최명근	권사	동대전
15	역사기록부서기	홍순금	권사	포항장성
16	회계	김성숙	권사	칠성
17	부회계	이영분	권사	영세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직책	이름	소속
상임대표	양재성 목사	가재울녹색교회, 종교환경회의 상임대표
공동대표	안홍택 목사	고기교회
	배현주 교수	WCC 실행위원
	정원진 목사	서울제일교회
사무총장	이진형 목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제106회기 기후위기위원회 명단

성함	교직	노회	교회
곽영수	장로	부산	부산영락
김광훈	목사	광주동	주산
김영선	목사	영등포	새하늘
박남주	목사	전북동	무주장로
박도현	목사	인천	부민
민양기	장로	용천	창동염광
소종영	목사	대전서	가장제일
이순창	목사	평북	연신
최상현	장로	서울서	도원동

전문위원			
이진형	목사	안양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최광선	목사	순천남	덕신
유미호	사모	영등포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센터장